



한밤에 홀로 연필을 꺾으면 향그런 영혼의 냄새가 방안 가득 넘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분처럼 이제 나도 연필로만 시를 쓰고자 합니다 한번 쓰고 나면 그뿐 지워버릴 수 없
는 나의 생애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연필로 쓰기 지워버릴 수 있는 나의 생애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나의 생애 용서받고자 하는 자의 서러운 예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
니다 나는 언제나 온전치 못한 반편반편도 거두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연필로
쓰기 잘못 간 서로의 길은 서로가 지워드릴 수 있기를 나는 바랍니다 몇몇했던 나의 길
진실의 길 그것마저 누가 지워버린다 해도 나는 섭섭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남기고
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추고자 하는 자의 비겁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오직 향그런 영혼의 냄새로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 정진규, 「연필로 쓰기」, 영언문화사

■ 시인 : 정진규

1939년 경기도 안성 출생. 196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마른 수수깡의 평화」, 「연필로 쓰기」, 「뼈에 대하여」, 「알시」 등이 있음

■ 시 해설

잘못 쓴 글씨를 지우듯 우리의 생애도 지우고 고쳐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간 길을 서로 지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몇몇했던 길마저 지워진대도 섭섭해하지 말고, 그것도 얼마든지 지워질 수 있는 것이라 여기며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허물 많은 삶에 대한 용서와 사랑, 향그런 영혼의 냄새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 시인 도종환



표지설명 :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이한 2009년, 기억에 남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서

표지사진 : 김윤해 | 사진작가
뒤 표지 : 조주영 | 일러스트레이터

공군 December 2009 No.378

발행일자 | 2009년 12월 4일(통권 제378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장 김규진

기획·편집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 기용호

디자인·인쇄 | 국군인쇄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CONTENTS

2009.12

www.airforce.mil.kr Vol.378

- 04 기획특집 1 _ 2009년 한 해 밑줄을 긋다!
- 09 PREVIEW _ 12월의 문화행사
- 10 기획특집 2_ 공군 창군 60주년 Adieu! 2009
- 15 창군 60주년 특집 11 _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Ⅱ
_ 12월의 공군역사
- 18 Hot Clip! _ 공군, 국가품질상 대통령표창 수상
- 20 참모총장 스케치
- 22 공군은 지금
- 26 e-Sports, <ACE> _ 스타의 종말과 앤디워홀의 비누상자
- 29 Beauty 바이러스 _ 주름으로 고민하는 당신께!
- 32 전재인의 일상茶반사 _ 다신전 제5장 화후(火候)
- 35 책마을 _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 36 Bird Alert! _ 하늘의 왕자 보라매
- 40 생각하는 그림 _ 석 잔의 차로 운명을 바꾸다
- 42 이등병이 쓴다! _ 매서운 바람을 녹여내는 훈훈한 선임병의 마음
- 44 박희숙의 Behind the Canvas _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회화 3선
- 46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그냥 한번 해본다고? 정신 차려요!
- 48 World-Wide Vision _ 약속을 지키다
- 52 지휘관 기고 _ 「리턴 투 베이스」를 읽고
- 54 우리 건강합시다 _ 추위를 이기는 개가 가지개켜는 자세
- 56 Letters to the Editor _ 2009년 10월호를 읽고서



전발단 -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행사

공군은 올해 창설 6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9월 22일 오후 여의도 공원에서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탑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행사 직후 KBS 열린음악회가 KBS 공개홀에서 이어졌다. 그리고 10월 23일 오후 서울 ADEX 2009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실시했다. 기념식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호주, 캐나다, 그리스,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군 참전용사와 그 가족 7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외에도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세계 공군참모총장회의 등을 실시하여 공군의 비전을 논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공군본부 - 제31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09 본선대회 개최

공군은 창군 60주년을 맞아 마련한 '제31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09' 본선대회를 5월 24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 자유비행 부문 본선에 출전하게 되는 1,300여 명의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은 지난 4월부터 50여 일간 진행된 전국 15개 지역의 예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실력자들로서, 본선대회에서는 이들 중 글라이더와 고무동력기 날리기의 '왕중왕'을 가렸다.



제5전비 - RODEO 2009 최우수 외국팀상 수상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미 워싱턴 주 맥코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2009 국제 공중투하 경연대회'에 제5전술공수비행단 C-130 수송기 1대와 공군 최정예 조종사·정비사 등 33명이 참가해 한국·터키·독일 등 7개의 외국팀 경쟁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공군은 C-130 수송기로 가능한 5개 분야, 18개 종목에 참가하여 야간 저고도 항법 및 급유 절차 점검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비행 전·후 정비 점검, 전투체력, 지상전투능력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외국팀 경쟁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제10전비 - 두 발로, 두 바퀴로 강한 전사 ACE TEN

제10전투비행단은 지난 5월, 녹색기지(Green Base) 출범식을 갖고 실천운동에 돌입했다. '두 발로, 두 바퀴로 강한 전사 ACE TEN' (이하 두 발로 두 바퀴로)이라는 이름 아래 전투부대인 비행단 장병들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통한 강한 전사 양성, 그리고 부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10전비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장병들이 체력단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ACE TEN Top Warrior(10전비 최고전사)를 선발했다.





복지단 - 에어스포렉스 개관

공군복지단에서는 지난 6월 8일 재경지역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에어스포렉스를 개관하였다. 에어스포렉스는 공군회관 부속시설로서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남녀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경지역 장병들의 피복구매 편의를 위해 피복판매소가 입점하였다. 이로써, 공군회관은 공군 대표 복지시설로서 숙박, 연회 및 문화 레저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지역의 최고의 명소로 자리하였다.

제11전비 - '하늘의 도깨비' F-4D, 도입 40주년 맞아

'미끼 킬러(MiG Killer)', '하늘의 도깨비' 등으로 불리며 지난 1969년 도입 이후 조국의 하늘을 철통같이 수호해 온 공군 11전투비행단 151전투비행대대(이하 '151대대')의 F-4D 팬텀 전투기가 8월 29일 도입 40주년을 맞이하였다. F-4D 팬텀 1차 도입분 6대는 태평양 상공에서 미 공군 KC-135 공중급유기의 공중급유를 받고 주일 미 공군 오끼나와 기지를 경유하여 1969년 8월 29일 오전 대구기지에 무사히 착륙하였다. F-4D 팬텀을 도입한 것은 우리 공군이 아시아 최초였다. F-4D 전투기는 11전투비행단에서 함께 운용하고 있는 최신예 전투기인 F-15K에 영공방위의 임무를 맡기고 명예롭게 2010년 퇴역하게 된다.



공군본부 -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을 펼친 2009 공군항공우주캠프 개최

지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공군사관학교 등에서 '2009 공군항공우주캠프'를 한국항공소년단과 함께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공군사관학교에서 항공과학기초이론을 배운 뒤 국내 최대 규모의 풍동실험실에서 항공역학을 실험했다. 또 공군박물관과 항공기전시장을 견학하고 사관생도와 조종사가 되는 길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12m 높이에서 뛰어 내리는 모의 낙하산 강하훈련과 수중 구조훈련도 실제로 실시하고 C-130 수송기에 탑승하였다.

제20전비 - 군내 최초의 무장전시관 개관

제20전투비행단은 지난 6월 26일 각 군 및 민간 방문객에 대한 효과적인 공군 홍보 및 장병 교육을 위해 군내 최초의 무장전시관을 신축하였다. 매번 견학 시마다 야외에 설치해야 했던 항공무장/탄약들을 실내에 전개하고 KF-16 항공기 및 무장 소개 동영상, 탄종별 무장 발사과정 등을 전면에서 시현케 하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었다. 또한, 야외에서 접할 수 없었던 20mm 탄약 및 기총의 실물과 유도탄 구성품의 내부 분해 모습까지 추가적으로 전시하여 공군과 공군 무장정비사의 위용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제29전대 - Soaring Eagle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는 4월 13일부터 2주간 대규모 항공전역 종합훈련인 「Soaring Eagle(飛天)」을 실시하였다. 공군 조종사들의 실전적 작전수행 능력과 전투기량 향상을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총 6개 대대, F-15K, KF-16, F-4, F-5, RF-4C, KA-1 등 6개 기종, 60여 대의 전투기와 100여 명의 조종사·지원요원이 참가하였다.

제38전대 - 2009 군산 새만금 에어쇼

지난 10월 31일, 전북 군산시에서는 '2009 군산 새만금 에어쇼'가 '하늘과 땅, 바다가 어우러지는 더 큰 세상을 꿈꾸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군산시와 美 공군 제8전투비행단, 한국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한·미 공공간 우의를 제고하고 대국민 신뢰 증진을 위하여 펼쳐진 2009 군산 새만금 에어쇼는 새만금 군산산업전시관 앞 특설 무대에서 공군 군악대 및 의장대의 시범을 통해 절도 있고 박력 넘치는 개막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美 공군 제8전투비행단, 한국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는 새만금 상공에서 에어쇼를 펼치며 세계 최고 기량을 보여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제52전대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센터' 개소

지난 8월 14일, 52시험평가전대에서는 군용항공기 '감항(感航)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 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센터의 개설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된 검증된 항공기 개발능력에, 이제는 비행안전성 검증능력까지 구비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 이번 감항인증센터의 개설은 차후 국내 개발 항공기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대학 - 제15회 국제항공전략 심포지엄

공군대학은 9월 17일 제15회 국제항공전략 심포지엄을 자운대 총무관에서 개최하였다. "전승을 위한 군수지원(Joint Logistics : A War Experience)"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美 육·해·공군 및 韓 공군 군수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 군의 입장을 발표하고 열린 토론을 펼쳤다.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항공전략 심포지엄으로서, 그동안 한국 공군력 건설, 합동성 및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이론개발 및 발전방안을 도출해 왔다.



공군본부 - 전시 동원 실효성 검증을 위한 충무훈련 시행

10월 13일 11전투비행단, 30방공관제단, 서울지방항공청 등 5개 부대와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민간항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회전익, B-214)를 동원하여 항공유 재보급, 긴급물자 수송 및 환자 후송 임무를 실제 수행하였다. 전군 최초 시행하는 이번 경항공기 동원훈련은 기존에 시행하지 못했던 훈련유형을 실시함으로써 전시 동원 운영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전시 전환 절차를 숙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군본부 - 「디지털 비행단」 구축



지난 2월,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아 기지 어디에서나 지휘통제 및 임무수행이 가능하고 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비행단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야심찬 군사변혁에 착수하였다. 제10 전투비행단을 시범부대로 선정하여 무선 네트워크(WiBro)를 구축하고 상황관리, 기지경계, 출입통제, 업무절차 개선 및 인터넷 TV를 구축하였다. '10년부터 전 비행단에 확대 구축하면 NCW 수행 기반을 갖춘 정보·기술 집약형 비행단으로 전환하여 명실공히 「디지털 비행단」으로 거듭난다.

군수사 -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제35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공군 군수사령부 83정보통신장비창과 군수관리단, 그리고 60수송전대가 '6시그마·운영사례·사무간접' 등 3개 부문에 출전, 3개의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경영혁신의 기초단위인 품질분임조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 경영 혁신의 발판 마련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국내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행사다.



전발단 - 「공군비전 2030 (Air Force Vision 2030 and Beyond)」 발간



2009년 10월, 전투발전단 교리발전처에서는 공군창군 60주년을 맞이하여 공군이 항공우주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선진 정예 강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군인의 노력을 결집하고자 「공군비전 2030」을 발간하였다. 「공군비전 2030」에서는 「연합·합동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래 국방여건과 전투발전요소를 고려해 전력구조, 부대구조, 국제협력 등 11개 분야를 선정, 2030년까지의 발전방향을 10년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방포사 - '09 유도탄 사격대회 개최

방공포병사령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대천 사격지원대에서 방공포병부대의 실전적 전술기량을 종합평가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09 유도탄 사격대회를 실시했다. 196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3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 방공포병사령부 예하 방공포대와 방공포병학교, 비행단 및 관제부대 방공포병 요원들이 참가하여 각각의 사격기술과 종합적인 작전능력을 선보였으며, 사격장비로는 중거리 유도탄인 호크(HAWK)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미스트랄, 신궁이 사용되었다.



PREVIEW

객원기자 **이예진**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국군포로이다”
안중근 서거 100주년 기념 뮤지컬 <영웅>**

안중근. 교과서에서 익숙하게 들어온 이름이지만, 이 이름을 듣고 가슴 가득 감동 혹은 고마움을 느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뮤지컬 <영웅>은 수십 년 전 이맘때쯤 “나는 두 손 모아 총을 겨눴지만, 내 아들들의 두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길 바란다”는 그의 바람에 뜨거운 가슴으로 화답할 수 있는 공연이다.

안중근이 서거한 지 100년이 됐다. 자칫 잘못하면 역사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거나 지루하게 느끼게 할 수도 있는 무대이다. 그러나 뮤지컬 <영웅>은 안중근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조명하기보다 오히려 한 남자의 의로운 청춘을 다룬 무대에 가깝다. 기차가 등장하는 하얼빈역 거사 장면과 일본군에게 쫓기는 독립군들의 남성미 넘치는 군무, 영상과 혼합된 격렬한 추격 장면, 실력 있는 배우들의 아리아 등이 안중근의 청춘을 뒷받침한다.

이 뮤지컬에는 선남선녀의 러브 스토리, 패셔너블한 의상,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달콤한 노래는 없다. 그러나 국내 수많은 대형 뮤지컬의 거품에 실망과 기대를 교차한 관객들은 오랜만에 ‘정통’에 가까운 무대와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의미를 두지 않았던 장면들에 감동해 결국 공연 끝자락엔 기립박수를 치게 된다.

기간 : 12월 31일까지
장소 : 서울 LG아트센터
가격 : VIP 11만 / R 9만 / OP 8만 / S 7만 / A 4만(15일부터는 +1만)원
홈페이지 : <http://blog.daum.net/acommusical>



**솔로 크리스마스도 소녀시대만 있으면 괜찮다?!
제시카 데뷔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

2001년 흥행에 성공한 영화 <금발이 너무해>가 뮤지컬로 돌아왔다. 최근 한국에서 공연되고 있는 브로드웨이 라이선스 뮤지컬 가운데 가장 최신작이다. 더욱이 주인공 ‘엘 우즈’에 소녀시대의 제시카, 미스코리아 이하늬, 뮤지컬 배우로 변신한 김지우가 캐스팅돼 뮤지컬에서는 드물게 객석에서의 남초현상이 예상된다. 여기에 영화 ‘국가대표’에서 전직 웨이터로 출연한 김동욱이 가세해 12월 최고의 무대가 될 준비를 마쳤다.

주인공 금발의 미녀는 소위 말하는 ‘엄친딸’이다. 캠퍼스 캘린더 모델에 장학생, 거기에 하버드 법대에 다니는 남자친구까지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로부터 “너 너무 지나치게 금발이야”라는 말과 함께 이별 통보를 받은 엘 우즈, 스스로 진지하고 똑똑한 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남자친구가 다니는 하버드 법대에 입학한다. 미용실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주인공이 책만 들여다 보는 친구들과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이 달콤한 휴식을 안겨다 주기에 충분하다. 이번 공연은 ‘난타’를 만든 제작진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점에서도 기대할 만하다. 더불어 제시카가 나오는 무대를 보고 싶다면 주인공에 세 명이 캐스팅됐다는 점을 감안해 홈페이지에서 미리 캐스팅 일정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자.

기간 : 2010년 3월 14일까지
장소 : 서울 코엑스아티움
가격 : R 8만 / S 6만 / A 4만(주말엔 +1만)원
홈페이지 : <http://legallyblonde.i-pmc.co.kr>





공군 창군 60주년 Adieu! 2009

자료제공 공군본부 공보과 원고정리 편집실

2009년은 참으로 뜻 깊은 한 해였다.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는 해로 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이 숨 가쁘게 곳곳에서 실시되었고 이제 기축년 달력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 놓고 있다. 지난 1999년 도입 후 10년간 940여 명의 조종사를 양성해냈던 T-38(TALON) 훈련기가 12월 미국으로 반환된다. 이번 호에서는 T-38 훈련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그리고 2009년을 마지막으로 공군을 떠나는 4명의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의 군 시절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며 저물어가는 기축년의 해를 미리 그려본다.

1 T-38과의 작별의식

'99년 도입 후 10년간 조종사 940여 명 양성, 12월 미 최종 반환

공군은 09-2차 고등비행교육과정을 끝으로 지난 10년 동안 공군의 정예 조종사 양성임무를 담당했던 T-38 훈련기를 미국에 최종 반환한다. T-38 훈련기는 미 노드롭사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 초음속 훈련기로서 1959년 비행을 시작하여 1961년부터 미 공군에 배치되었다. 1971년까지 총 1,000여 대가 납품되어 운용되었으며, 현재는 약 500여 대가 미국, 독일 등에서 운영 중이다.

공군의 고등비행훈련을 담당했던 F-5B 항공기 노후화에 따른 대체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 공군으로부터 T-38 훈련기 30대를 리스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999년 3월 25일 6대를 최초 인수하였다. 공군은 2000년부터 T-38 항공기

를 고등비행훈련기로 운영하였으며, 28개 차수 동안 총 940여 명의 조종사를 양성하였다.

운영기간 중 사고 '0' 건, 세계 최고수준의 정비 능력 재확인

T-38 훈련기가 공군에 인도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공군이 도입한 T-38 훈련기는 '항공기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미국 애리조나 사막 미 공군 초과품 저장창 'AMARC(Aerospace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Center)'에 보관되어 있던 항공기들로 1950년대 초도 생산 이후 평균 16,000시간을 비행하고 40년이 경과한 노후 항공기였다.

공군은 군수사령부 정비부 전술기체(현 군수관리단 전투기 관리부) F-5E/F 기술전문가 및 정비사들을 미국으로 직접 파견하였고, 무수히 쏟아지는 사막의 모래 속에서 일일이

상단그림 국산초음속훈련기 T-50(왼쪽 첫 번째, 두 번째 항공기)과 임무 중요한 T-38(왼쪽 세 번째, 네 번째 항공기)이 인수인계를 상징하는 편대비행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모든 항공기들을 점검하고 주요 기골부위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면서 최상의 T-38 훈련기를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항공기들은 1996년 T-38 항공기의 임차 사업 승인 후 총 3회에 걸쳐 도입되었다. 1999년 3월에 1차분 6대, 8월 9대, 11월까지 순차적으로 15대가 들어오면서 총 30대가 16전투비행단 189전투비행대대와 115전투비행대대에 배치, 운용되었다.

그 후, 10년 동안 우리 공군은 T-38 훈련기를 운용하면서 단 한차례의 사고도 없이 약 8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하였다. T-38 훈련기가 생산된 지 40년이 넘는 항공기임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 공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기 운영능력과 정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공군은 작년 6월 1차로 T-38 훈련기 15대를 반환하였으며, 오는 12월 군산항을 통해 선박으로 나머지 15대를 반환할 계획이다.

T-50 국산 초음속훈련기 이용, 본격적인 선진 비행교육 체계 운영

앞으로 T-38 훈련기의 빈자리는 국산 초음속훈련기 T-50이 대신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군은 국내·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진비행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2 T-38, 너는 내 운명

① T-38 최초의 학생조종사에서 T-38 마지막 교관 조종사로

- 115전투비행대대 소령(진) 한상준

1999년 T-38 훈련기 도입 당시 공군 최초의 학생조종사로 인연을 맺었던 16전투비행단 115전투비행대대 한상준 소령(진)은 현재 T-38 훈련기로 학생조종사를 가르치는 교관조종사이다.

이밖에도 한 소령(진)은 T-38 훈련기와 남다른 인연이 있다. 학생조종사로 비행 훈련 중이었던 2000년, 동료 학생조종사의 T-38 첫 단독비행 착륙과정을 활주로에서 촬영하게 되었는데, 교육효과가 높아 그 이후 학생조종사들이 단독비행을 하기 전 의무적으로 시청하고 있다.



1



2



3



4

1. 1999년 4월 3일 공군 16전비의 항공기 인수장면
2. T-38 최종 반납 및 115대대 잠정 해편식에 참여한 제16전투비행단 장병들
3. 제16전투비행단을 떠나는 T-38
4. 떠나가는 T-38과 작별하는 제16전투비행단 장병들



한상준 소령(진) T-38 최초의 학생조종사, 마지막 교관조종사



박종석 준위 10년 동안 T-38의 정비를 담당한 정비사



권오철 중위 T-38이 배출해 낸 마지막 조종사

이번 T-38 훈련기 반납으로 마지막 교관조종사가 되었다는 한 소령(진)은 “시작과 끝을 함께한 T-38은 일생토록 잊지 못할 것”이라며 “학생조종사가 훈련하기에는 힘든 면도 있지만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 다른 항공기를 운용하는데 많은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T-38 훈련기로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는 신입 조종사들에게 “T-38 도입 당시 선배 조종사와 정비사들이 작전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보여준 피나는 노력을 잊지 말고 늘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② T-38 항공기 정비와 함께한 지난 10년

- 115부대정비중대 박종석 준위

30년이 넘도록 항공기를 정비해 온 16전투비행단 115부대정비중대 박종석 준위는 기술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정비사로 1999년 T-38 훈련기 도입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T-38 훈련기 정비를 담당했다.

박 준위는 “T-38 훈련기가 F-5A/B 항공기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었기에 기존 F-5A/B 항공기를 정비해 온 경험을 살려서 빠른 시간에 적응할 수 있었다.”며, “장기 운영 항공기이었음에도 선·후배 정비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난 10년 동안 무사고 기록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공군 정비사들은 T-38 도입 당시보다 성능이 좋은 항공기를 인수하기 위해 美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美 공군 초과품 저장창 ‘AMARC(Aerospace Main-

tenance and Regeneration Center)에서 모래바람을 뚫고 일일이 모든 항공기를 점검, 선별하였다.

또한, 항공기 인수 후에는 축적한 노하우와 철저한 예방정비를 바탕으로 생산한 지 40년에 이르는 항공기를 사고한 건 없이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었다.

③ ‘나에겐 이 세상 최고의 항공기!!!’

- 115전투비행대대 권오철 중위

1년 8개월간의 힘든 비행교육과정을 끝마치고 빨간마후라를 목에 맨 학생조종사 권오철 중위. 그는 올 12월 미국에 반환되는 T-38A 항공기의 마지막 학생조종사였다. 마지막 학생조종사로서 “마지막 학생조종사라는 칭호가 너무나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많이 아쉽다.”라는 소감으로 섭섭함을 대신했다.

T-38A 항공기는 저속 상태에서 매우 정교한 조작을 요하고, 전반적인 항공기 조작이 힘들다고 익히 알려진 항공기이기에 권 중위 또한 이 항공기를 몰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교관조종사들이 말했던 대로 T-38A 항공기로 착륙할 수 있다면 세상 모든 항공기를 착륙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이제는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끝으로, 지난 1년 8개월 간의 비행훈련 과정을 마치고 청운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공군과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대장님과 교관조종사들께 영광을 돌린다는 권오철 중위. 그가 있기에 T-38A가 떠나가는 발걸음이 웬지 사뭇 해 보인다.

3 내 기억 속의 공군

공통 질문

- 1. 공군에서 총복무기간
- 2. 복무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 3. 복무 중에 얻은 가장 중요한 지식/교훈
- 4. 전역 후 앞으로 계획

#1. 대령 강운성 (공사 31기,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의무처장)



1 >>>> 청운의 꿈을 안고 성무대 언덕을 넘는 때가 1979년 2월 1일, 임관일이 1983년 3월 28일이나 군복을 입고 생활한 총 기간은 약 30년 11개월입니다. 지나왔던 길이 생생하게 기억나지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요.

2 >>>> 가장 먼저, 생도 4학년 시절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에서 육사와의 럭비 경기에서 29 : 10으로 승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국방부 환경과 창설 멤버로서 근무하며 창군 이후 최초로 3군 총 60여 개 부대를 조사하여 “군환경오염실태보고서”를 작성했던 일, 지금의 항공우주의료원으로 발전하게 된 “항공의료원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했던 일, 마지막으로 공군 장병 및 군무원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에 3천여 명이 적극 동참하여 어둠 속에서 새로운 삶을 갈구하는 환우분들께 희망을 주게 했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잊혀지지 않습니다.

3 >>>> 서산대사의 유명한 시 중에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답설야중거 불수호난행 금일야행적 수작후인정)”이란 글이 있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길을 걸어 갈 때에 아무렇게나 어지럽게 밟아 가지 말라,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을 머지않아 누군가 걸어 올 지도 모르기에”라고 해석이 되겠죠. 군복무 중에도 항상 내가 걷는 길을 후배들이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도가 아닌 길은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4 >>>> 군생활 중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하고픈 일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우선 적절한 시기에 약사로서의 개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환경학 박사과정을 밟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시인과 수필가로 등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공군으로부터 30여 년의 군생활을 통해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니다. 그래서 전역 후에는 개업과 학업, 그리고 문학 활동을 통해 봉사하며 그동안 받기만 했던 혜택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조금씩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제 삶을 엮을 계획입니다.



#2. 중위 김윤태 (사후 117기, 공군본부 정책실 정책관리과)

1 >>>> 1년(제20전비에서 병사로 복무기간) + 3년 4개월(훈련 4개월, 군수사 1년, 공군본부 2년)

2 >>>> 아무래도 진주에서 훈련을 두 번이나 받다보니 훈련소에서의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다. 서로 다른 신분으로 훈련을 받아보면서 장교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비교 체험해 본 것은 특별한 경험이였다. 특히, 야간지속훈련을 하며 먹었던 가스 맛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끔찍한 맛이였다.

3 >>>> 병사와 장교를 모두 겪는 조금은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 한 조직의 아랫사람으로서 어려운 점이나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과 처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일을 하는 건 사람이라는 단순하고도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4 >>>> 유학을 준비 중이다. 입대 전 하던 공부를 더 해 볼 계획이다.

#3. 병장 강 대 (병 657기, 교육사령부 정보통신학교 훈육조교)



1 >>>> 785일(2007년 10월 29일 ~ 2009년 12월 22일)

2 >>>> 작년 겨울 크리스마스 때의 일이다.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 2시간 동안 정신 없이 땅을 파고 덫을 설치하였다. 그렇게 사슴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음날, 사무실에서 불현듯 대대장님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위협하니 덫을 당장 없애라는 지시를 들었다. 크리스마스 3시간의 노동은 다음날 헛수고가 되었다. 내 인생에 최악의 크리스마스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3 >>>> 군대에서 보직이 특수직책인 훈육조교이다. 조교는 겉으로는 소리치고 열차려 주는 무서운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속을 보면 조교는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교육생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부터가 많이 바뀌었다. 조교 최선임을 1년 반 동안 하고 있다. 주위의 부러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나의 26개

월간의 군 생활은 책임감과 리더십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4 >>>> 재학 중인 대학으로 바로 복학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일단 지금은 재테크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를 계속 할 생각이며, 내 인생의 최종 목표인 근사한 레스토랑을 소유하기 위해 요리 공부도 하며 경영학 공부도 병행할 생각이다. 군대에서 배운 성실함으로 밖에 나가서도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부지런하게 살 것이다.

#4. 하사 이광철 (전문(숙련)/12, 5전비 군수전대 기관프로펠러 정비사)

1 >>>> 총 42개월(병사 642기 : 27개월, 하사 : 15개월)

2 >>>> 병사 복무에서 하사 복무 시 책임감이 더해진 업무를 하였지만 조출과 만퇴를 하면서도 틈틈이 도서관에서 공부하여 각종 자격증(한자 2급, 항공산업기사, 항공정비사 필기, 토익 595 등) 취득과 자기계발을 실현한 점이 가장 뿌듯하고 제 군 복무 중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3 >>>> 자신을 낮추어야 남으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전문하사라는 계급이 조금은 병장 생활의 연장선이라 다른 선임이나 후임들이 볼 때에 편견과 선입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장의 신분에서 막내 하사로 신분을 전환했을 때 '나는 전에 이 작업을 많이 했고 많이 알고 있으니 병사 때처럼 하면 될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사 복무 생활을 한다면 책임감이 중요시되는 초급간부 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군 생활에서 배운 점은 조직 생활에서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과 직무에 있어서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4 >>>> 부족한 영어 회화 능력 습득을 위해 복학하기 전에 미리 대학교 근처에 올라가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공 관련계통 학과에 복학하여 군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학업에 매진하여 앞으로 항공관련 분야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11

자료제공 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의 편집실

창군기 (1945~1950)



L-4(1948)

L-5(1948)



T-6(1950)

전쟁 및 전후정비기 (1950~1960)



F-51(1950)

F-86D/F(1955)



T-33(1955)

T-28(1960)

국방체제 정립기 (1961~1970)



F-5A/B(1965)



F-4D(1969)

자주국방 기반조성기 (1971~1980)



T-41(1972)



F-5E/F(1974)



A-37B(1976)



F-4E(1977)

자주국방 강화기 (1981~1990)



F-5제공호(1982)



F-16C/D(1986)



C-130H(1988)

국방태세 발전기 (1991~현재)



UH-60(1991)



HH-47(1991)



T-59(1992)



KF-16C/D(1994)



CN-235M(1994)



T-38(1999)



KT-1(2000)



HH-32(2004)



T-103(2004)



F-15K(2005)



T-50(2005)



자료제공 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리 편집실

- 1962년 12월 1일 • T-6 건국기 퇴역
- 2001년 12월 18일 • 제57공수비행단(청마부대) 창설 및 파병
- 2005년 12월 12일 • F-15K 도입 및 명명식 거행

T-6 건국기 퇴역 (1962. 12. 1)



역대 참모총장들이 건국기 프로펠러에 꽃다발을 걸어주며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이 태동하였으나 L계열의 경항공기 20여 대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전투기는 단 한대도 없었다. 선배 장병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전투기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였지만 번번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사오자고 결심한 항공인들은 '애국기 헌납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당시 신생 대한민국은 피폐한 국체를 온전히 추스르기도 힘든 처지였고 국민들 역시 하루하루를 근근이 이어나가는 형편이었다. 이런 가운데 '애국기 헌납 운동'은 전 국민적인 호응을 얻게 되어 예상모금액 2억환을 훨씬 뛰어넘는 3억 5천만환의 모금 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미국이 항공기의 대한(對韓)판매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판매를 거부하자 우리 공군은 캐나다製 T-6 Texan 항공기 10대를 들여왔다. 국가의 건설과 애국심을 상징하기 위하여 '건국기'로 명명한 이 항공기는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L-4, 5 항공기와는 달리 우리 선배 장병들과 국민들의 정성어린 염원이 담겨져 있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한국공군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6·25전쟁 동안 T-6 건국기는 적진출격 28회, 정찰비행 196,796회, 전단 살포 4,644,000매, 연락비행 1,078회의 전과를 거두었으며, 정예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도 그 역할에 충실해 588명의 보라매들을 키워내기도 하였다.¹⁾

1962년 12월 1일 여의도기지에서 성대하게 거행한 T-6 건국기 퇴역식은 장성환 참모총장을 비롯한 역대 참모총장들이 참석하여 격동의 세월을 인고의 비행으로 버텨온 건국기의 프로펠러에 꽃다발을 걸어주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노병에 대한 마지막을 아쉬워하였다. 또한 이날, 장성환 참모총장은 항공기 퇴역식에서는 이례적으로 5쪽 분량의 담화문을 발표할 정도로 T-6 건국기가 우리 공군에서 차지해온 상징적 위치와 역사적 가치는 대단히 값진 것이었다.

1) 자료출처 : 건국기 퇴역에 관한 담화문(1962년 5월 1일)



제57공수비행단(청마부대) 창설 및 파병(2001. 12. 18)

9·11 사태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이 그 배후세력인 알 카에다와 이를 지원하는 탈레반정권을 대상으로 항구적 자유작전(Enduring Freedom)을 개시하자 우리 정부는 C-130H 수송기 4대를 포함한 150명 내외의 1개 공군수송지원단과 의료지원단, 해군수송지원단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군에서는 소요병력의 선발과 교육을 완료하고 2001년 12월 18일 5전술공수비행단 주기장에서 이억수 前 참모총장 임석하에 제57공수비행단(청마부대)으로 명명한 공군수송지원단의 창설 및 파병식을 거행하였다.

제57공수비행단은 해외주둔지 결정을 위하여 인도, 괌, 디에고 가르시아, 오만, 키르기스스탄, 쿠웨이트, 아프리카(케냐/소말리아) 등지로의 전개를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중국에는 김해기지내의 미군병원으로 주둔지를 최종 확정하면서 싱가포르와 디에고 가르시아간 정기공수와 각종 부정기 공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2003년 12월에 해단하였다. 57공수비행단은 임무기간 중 81회에 걸쳐 600명의 인원과 310톤의 화물을 수송하여 미군으로부터 약 1,800만 달러에 달하는 임무기여도를 평가받았으며, '항구적 자유작전'과 '이라크 자유작전'의 완전 종료시까지 지속적인 임무 연장을 요청받을 정도로 인상 깊은 활약상을 보여주었다.



제5전술공수비행단 주기장에서 제57공수비행단의 창설 및 파병식을 거행하였다.

F-15K 도입 및 명명식 거행(2005. 12. 12)

차기 전투기사업(F-X)의 대상기종으로 선정한 F-15K 전투기의 도입 및 명명식이 2005년 12월 12일, 대구기지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 유재건 국회 국방위원장, 김성일 공군참모총장 등 각계각층의 내외귀빈 670여 명과 장병 및 군무원 등이 참석하여 F-15K 전투기의 본격적인 전력화를 축하해 주었으며 식후행사로 F-15K의 Slam Eagle 명명식이 이어졌다.

“전승을 거두다!, 타격을 가하다!”라는 뜻의 슬램(Slam)과 F-15계열의 별명인 이글(Eagle)을 조합한 본 명칭은 F-15K가 F-15계열 중에서는 유일하게 장거리 크루즈미사일인 SLAM-ER(마하 0.8~0.9의 속도로 300km의 사정거리를 가짐)의 운용이 가능하고 1,500km의 작전반경을 가져 우리 공군의 전술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킨 차세대 전투기로서 바로 ‘전승을 달성하는 하늘의 절대강자’임을 상징한 것이다. 이날 정식으로 우리 공군이 도입한 F-15K 2대(3, 4호기)는 하와이와 괌을 거쳐 총 15,962km를 비행해 2005년 10월 7일 서울기지에 도착하였으며 ‘2005 서울에어쇼’에서 일반에 공개되었다. ㉞



F-15K 도입 및 슬램이글(Slam Eagle) 명명식이 대구기지에서 엄수되었다.

*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아 월간 「공군」에서는 2009년 2월호부터 「창군 60주년 특집」을 연중 11회에 걸쳐 게재하였습니다. <이달의 공군 역사>,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만화로 보는 공군역사 상징인물>, 그리고 <다시 읽는 공군>을 통해 공군 창군 6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2009년 12월호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치며, 그동안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군, 국가품질상 대통령표창 수상

- 제3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인재개발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 “미래 전력은 인력이며 교육은 투자다” 참모총장 리더십 높이 평가

자료제공 공군본부 공보과 원고정리 편집실

공군본부가 11월 25일 코엑스몰에서 지식경제부 주관 제3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인재개발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지식경제부가 국가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인재개발, 녹색경영, 생산혁신 등 6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을 수여하는 행사로서, 공군본부는 인재개발분야에서 피감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하여 국가품질상 대통령표창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인재개발분야 국가품질상은 지휘관의 리더십, 조직의 인재개발 및 관리 현황, 인프라 구축 실태 등 5개 항목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성과와 실적을 기반으로 최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공군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다음 지난 8월 12일부터 3일간 강남대 최정상 교수를 비롯한 외부전문가로부터 현장심사를 받았는데, 참모총장의 “미래 전력의 핵심은 인력이며 교육은 투자다.”라는 리더십과 우수인재 획득,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 양성,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훈련 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식경제부 최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국가품질경영대회의 일환으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진행된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6시그마, 운영 사례 등 3개 분야에 출전하였는데, 이날 행사장에서 3개팀 49명의 분임조가 대통령상 금상을, 2개팀 24명의 분임조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하여 공군의 저력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이계훈 참모총장은 “무형전력 창출의 근간이 조직의 인재개발에 있다. 국가품질상 평가 참가가 공군의 인력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부족한 분야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경쟁력 있는 공군을 만들기 위하여 인재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군은 2008년도에도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공공기관 인재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에서 24개 공공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해당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과시한 바 있다. ④



대통령 표창 | 인재개발상

대한민국 공군



공군참모총장 대령 이계훈



소재지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3호
 지분액 | 해당사항 없음
 매출액 | 해당사항 없음
 인 원 | 66,000명
 임 무 | 대한민국 영공방위

공군연혁

- 1949 공군 창군
- 1950 한국공군 최초 출격 임무수행
- 1955 F-4E와 F-33A 도입(제1기 사대 개편)
- 1961 직할사령부 창설
- 1965 국내 최초 초음속 항공기(F-5A) 도입
- 1966 군수사업 창설 및 공군대학 설립(한편)
- 1974 교육사업 창설
- 1985 사령부 병용제(제10대) 제정
- 1989 항공정비사령부 창설 및 공군대학 편입
- 2000 항공부대 창설 및 아비트론 창설
- 2005 F-16K 및 F-50 도입
- 2008 제10대 도입
- 2009 공군창군 60주년

Human Resource Development Award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

수상소감

국제 최고기관을 자랑하는 국가품질인재개발 분야를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아 유례가 이례한 커다란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것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광스런 수상은 그동안 우리 공군이 미래 전력은 곧 인력이며, 보국은 무지대 라는 원칙을 가지고 군으로서의 전문성과 전사적 기량이 중립한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과감하게 투자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군은 지속적인 향상지위향상을 통해 현상에서 필요한 인력지원의 구비역량과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고인력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60년 을 준비하는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추진내용

대한민국 공군은 '인적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세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적'·'과학' 교육훈련 강화, '역량개발'의 인재양성 및 인사관리, '성과중심'의 상용적 선진 운영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GIS, Simulated CRT 등 과학화 장비를 통한 실전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실무대 운영에 적합한 현장중심 교육운영을 병행함으로써 구성원의 참여와 실무능력 구비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역량개발의 인재양성 및 인사관리를 통하여 전문성을 겸비한 전사적 인재를 육성·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수인재를 표기



에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기능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모험관 리체계를 정비하였다. 셋째, 시스템에 의한 합리적 조직관리와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체계 확립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군내에서 최초로 2006 년부터 ESC 제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신정보체계(PWS : Pre Warning System)와 지식관리체계(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활용하고 있다.

향후 계획

공군은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인재를 우선 선발하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활용하도록 적극 추진 할 것이다. 또한, 대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에 선공하는 경쟁력 있는 공군으로 거듭날 것 이다. 이번 국가품질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 공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을 가진 강함공군, 국민과 공군의 신·후대를 자랑스리위하는 첨단 항공주력을 갖춘 세계 일류 공군 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다.

추진성과

- ① 유망효과
 - 2009년 국방제도개선 최우수기관
 - 2009년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 국방부 장의·상용 채용 수 부대 선정, 국방부 장의학술 동아리 최우수 부대 선정, 대한민국 ESC 대상
 - 2007년 대한민국 HR 대상 수상
- ② 무형효과
 -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의 합리성, 효율성 제고
 -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정착

Hot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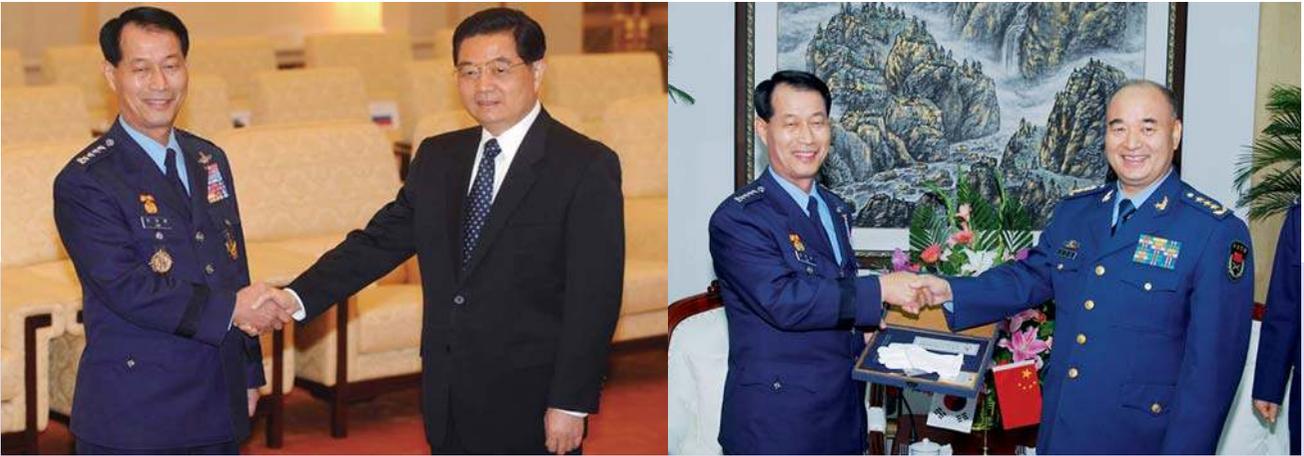
◎ 09-2차 고등비행수료식

참모총장은 11월 16일 제1전투비행단에서 거행된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을 주관했다. 참모총장은 이날 각고의 노력으로 비행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신임 조종사들의 목에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마후라를 직접 매어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주요 지휘관참모, 내빈 및 수료생 가족들과 함께 신임 조종사들의 장도를 축하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조민규 중위를 비롯한 3명이 영예의 참모총장상을 수상했으며, 1전비 홍주현 소령 외 4명은 우수교관으로 선정됐다.



◎ 日, 항공마료감부 운영부장 접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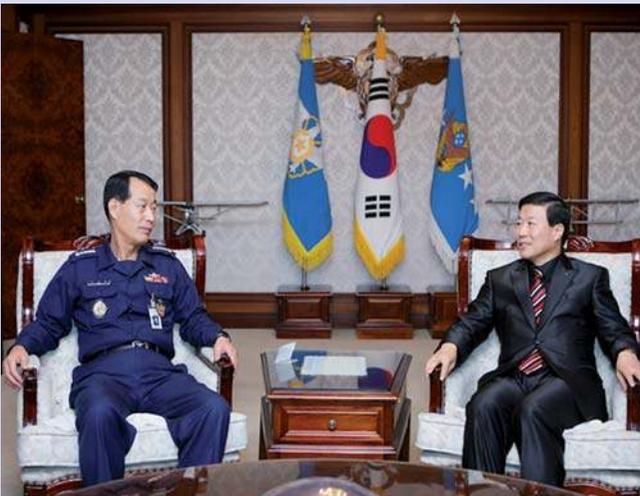
참모총장은 11월 2일, 한·일 정보교류회의 참석차 공군본부를 방문한 일본 항공마료감부 운영지원 정보부장 나카시마 쿠니스케(Nakashima Kunisuke) 소장 일행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 중국공군 평화발전포럼 참석

참모총장은 11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군사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올해 창군 60주년을 맞은 중국 공군에서 '공군평화발전포럼' 참석자로 공식 초청하면서 이루어졌다.

방중 기간 중 중국 공군사령원 쉬치량 상장(4성급), 일본 항공막료장 호카조노 겐이치로 대장, 스페인 공군참모총장 호세 히메네스 루이즈 대장, 칠레 공군사령관 리카르도 오르테가 페리어 대장, 터키 공군사령관 하산 악세이 대장 등 5개국 공군 최고지휘관과의 양자 대담을 통해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국산훈련기 T-50과 KT-1의 우수한 성능과 우리 공군이 구축한 선진 비행교육체계를 홍보했다.



◎ 부서관 리더십 강사 접견

참모총장은 11월 24일 공군본부를 방문한 한영수(韓永洙) 참단엔프라 대표이사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은 "우리 공군의 부서관 리더십 향상을 위해 약 2년 동안 24개 부대를 순회하면서 무상으로 강의를 해주신 것과 공보지역 부서관 수감자 지도방문을 위해 직접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한국천문연구원 방문

참모총장은 11월 18일 우주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천문연구원(KASI*)을 방문하여 박석재 원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은 "공군 우주전력 발전을 위한 기술 자문 등 제반 지원과 공군의 우주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위탁교육을 받아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전자광학 우주감시체계의 성공적인 중기전환 추진을 위해 공군과 천문연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 KASI : Korea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제3훈련비, '제213비행교육대대 18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축하 기념식
 제3훈련비행단은 11월 24일 교육사령관이 임석한 가운데 '제213비행교육대대 18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록은 지난 10월 13일 213비행교육대대 비행대장(소령 박희현)과 학생조종사(소위 추미정)가 조종한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착함으로써 달성되었으며, 1983년 8월 30일 이후 26년 2개월 만에 달성한 것으로 3훈련비는 순수 국산훈련기인 KT-1 항공기의 운영과 비행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는 학생조종사, 교관조종사 및 정비사, 지원요원이 혼연일체되어 이루어낸 위업이라 그 의미를 더했다.



◎ 제5전비, CN-235 시뮬레이터 경연대회
 11월 19일 5전비는, CN-235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전술조치 및 비상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터 경연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CN-235를 운용하는 256비행대대, 258비행대대의 전 조종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상황 인지 및 업무분담 능력, 비행 중 비상처치 능력, 안전 착륙 절차 수행능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한 조종사의 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완벽한 작전태세를 확립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 제17전비 '09년 부대훈련 경연대회 실시
 11월 26일, 17전비는 '09년 부대훈련 경연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경연대회는 부대 기본교육훈련을 내실화하고 부대 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252명의 17전비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대연병장에서 실시되었다. 경연대회는 오전에 보안평가를 시작으로 개회보고, 제대별 실기평가, 폐회식순으로 진행되었다.

2009 December



◎ 제20전비, '09년 군견 시범훈련

제20전투비행단은 11월 20일 군견취급병과 군견의 기량향상을 위한 '09년 군견 시범훈련을 실시하였다. 군견병들은 군견을 통제하며 군견 복종훈련과 폭발물 탐지훈련을 선보임으로써 평소 기지경계작전 수행에 기여하는 군견소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 제18전비, 산불진화 소집훈련

제18전투비행단은 11월 27일 산불진화 소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11월 '민방위의 날' 훈련 지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겨울철 산불 발생에 대비한 산불진화반 집결 및 임무숙달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작사, 성우회 회장단 작전사령부 방문

성우회 회장단 일행이 11월 12일 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현황보고를 받고 주요시설 및 한·미 공군의 주요 전투기를 관람하였다.



◎ 방포교, 병사의 날 행사 실시

방공포병학교는 11월 11일 병사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에는 기념식 및 소프트볼, 족구 경기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밴드 동아리 및 병사 장기자랑 공연이 있었다.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제8전비, 소중한 생명 구한 사랑의 헌혈증 저축제도

제8전투비행단에서는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시민들이 헌혈을 기피하여 국가적으로 혈액부족 상황이 발생해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랑의 헌혈을 실시, 단장을 비롯한 전 장병 및 군무원이 한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하여 혈액부족 상황 대처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번 헌혈은 부대 심재규 사무관의 모친이 대수술을 받아 급하게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무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혈액은행제도”를 통해 적십자 혈액원에 긴급한 혈액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부대내에서 헌혈한 혈액을 다시 혈액원에 갚는 “혈액대출”을 통해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



◎ 공사, '09-2차 해외항법훈련 실시

공군사관학교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5박 6일간 4학년생도 70여 명을 대상으로 C-130 수송기를 타고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해외항법훈련을 실시하였다. 해외항법훈련은 수송기 장거리 항법 체험훈련을 실시하여 공군사관생도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군 항공작전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생도들은 C-130 수송기 2대에 선배 조종사와 동승하여 항법장비 작동방법, 영공통과 절차, 비상상황 대처법 등 Cockpit 내에서의 비행 상황을 체험하였다.



◎ 방포사, 동계 전시작전체제 훈련 실시

방공포병사령부는 11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방공포병부대의 동계 전시 임무수행 능력 숙달 및 기지 생존능력 향상을 위한 동계 전시작전체제 훈련을 실시하였다. 전시작전체제 훈련은 호크, 나이키, 패트리엇 등 방공포병이 운용하는 대공무기로 빈틈없는 대공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부대의 생존성을 극대화해 전시 지속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방공포병의 중요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방공포병사령부 예하 여단 및 포·정비대 40여 개 부대가 참가했으며, 훈련은 여단 통제하에 각 부대에서 1박 2일간 실시되었다.



◎ 제10전비, 추계 비행단 체육대회 개최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11월 12일 장병 및 군무원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비행단 추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2009 December



◎ **교육사, 제45회 공군 지상사격대회 개최**

실전적 전투능력 배양과 사격기량 향상을 위한 '09년도 공군 지상사격대회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교육사령부 지상사격장에서 실시되었다. 전 공군 장병 중 최고의 명사수를 가리는 '공군 지상사격대회'는 공군본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어 올해로 45회를 맞이했다. 사흘간의 열띤 경합 속에서 일반 장병들의 사격점수와 사격교관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36전대가 최우수 부대로 선발되었으며, 일반 장병 사격에서 이규호 대위(진)(36전대, 권총), 허남수 하사(공사, 소총), 강기원 이병(36전대, 소총)이, 사격교관 권총부문에서는 김용일 대위(진)(5비, 권총), 심현조 상사(36전대, 소총)가 각각 공군 최고의 사격수로 등극했다.

〈**예비역 광장**〉



◎ **공사, 2사관학교 예비역 만남의 날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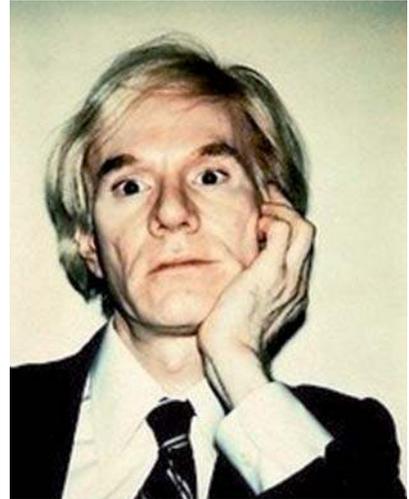
공군사관학교에서는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3일 공군 2사관학교 출신 예비역을 초청하여 공군의 발전에 기여한 것을 격려하는 「예비역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예비역과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2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사관생도들의 열병 및 분열 등을 받고 30여년 전의 생도시절을 회상하며 공군과 국가를 향한 충성심을 되새기고 공군 창군 60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공군 2사관학교는 정예 전투조종사의 요람으로 '76년 개교하여 '84년 폐교될 때까지 1천여 명의 장교를 배출하였고, 지금은 150여 명이 현역으로 근무 중에 있다.



스타의 종말과 앤디워홀의 비누상자

글 대위 유선의 | 방공포병사령부 정훈공보실



앤디워홀(Andy Warhol, 1928~1987) -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 대중 미술과 순수 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시각 예술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함

‘스타의 종말’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

‘스타크래프트의 종말’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 그거 뭐 유행 아닌가? (근대)철학, 역사, 예술 가릴 것 없이 때로 종말을 고했다고 하는데, 한날 게임 하나 끝났다는 게 굳이 새로운 소식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럼 더 구체적인 질문을 재차 드린다. 스타는 언제 종말을 고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종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런데 왜 갑자기 ‘스타의 종말’ 얘기냐고?

‘스타의 종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예술의 종말’에 대한 흥미로운 견해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한다. 바로 ‘앤디워홀의 비누상자’에 대한 이야기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미술비평가인 단토에 따르면, 예술의 종말을 구분해 내는 일은 매우 간단한 일이라고 한다. 유명 팝아티스트 앤디워홀과 함께 비누상자만 기억해 두면 되기 때문이다. (‘예술’이라고 흔히 번역되는 ‘아트(Art)’가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미술’을 뜻하므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미술의 종말’이라고 해야겠지만...)

어쨌거나 단토가 ‘예술의 종말’을 충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1964년의 한 전시회에서다. 그는 당시 미국 뉴욕의 초라한 갤러리에서 슈퍼마켓에서나 진열돼 있을 법한 ‘브릴로 상자’가 층층이 쌓여 있는 걸 보고 철학적 흥분을 느낀다. (‘브릴로’는 미국의 청소용 세제 브랜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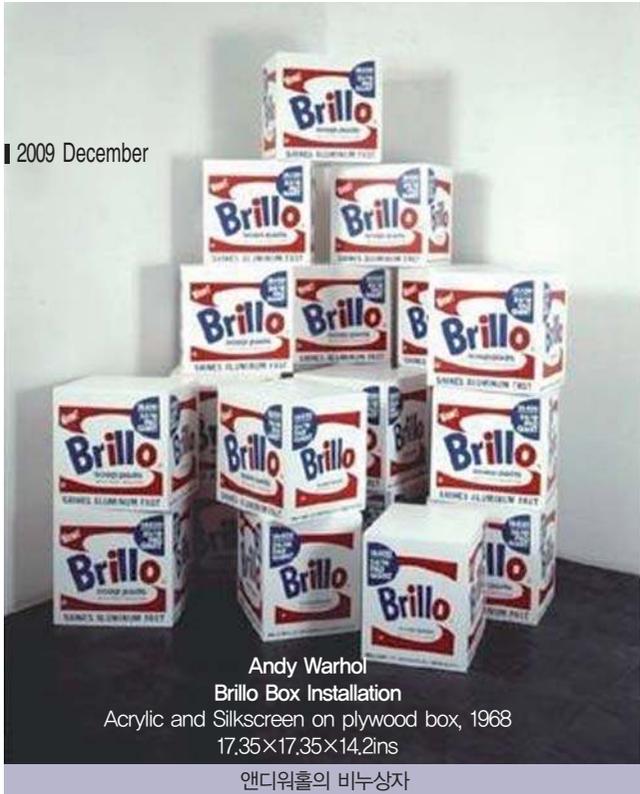
물론 워홀이 이 상자들을 사다가 미술관으로 그냥 옮겨놓은 것은 아니다. 이 상자들은 그가 브릴로 상자를 모방해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즉, 진짜 브릴로 상자는 골판지로 만들어졌지만 워홀의 브릴로 상자는 합판으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이 재질의 차이가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해서 겉보기에는 똑같은 두 종류의 상자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는 단순한 브릴로 상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팝아트 작품으로서의 브릴로 상자. 하지만 이 두 상자는 보는 것만으로는 식별되지 않는다. 흔히 무엇이 예술작품인가는 ‘보면 안다’고 말하지만 이 경우엔 ‘봐도 모른다’. 이것이 핵심이다. 미술이 시각(눈)의 문제에서 사고(머리)의 문제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똑같이 보이는 두 상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는 그냥 상자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작품이 되는가? 어떤 사물이 예술작품인가 아닌가는 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단토가 내놓은 대답이 ‘예술의 종말론’이다. 그가 말하는 예술의 종말이란, 워홀의 브릴로 상자가 말해주듯이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술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제기된다. 예술에 대한 정의가 더 이상 가능하지도 또 유효하지도 않았다면 거기서 예술의 역사가 종말에 이르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스타의 종말론’은 낮은 차원의 이야기다.

단토의 이러한 ‘예술의 종말’ 담론에 비해 지금까지 있었던 ‘스타의 종말’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스타의 종말에 대한 논의는, ‘예술의 종말’처럼 진지하게 다루어



Andy Warhol
Brillo Box Installation
Acrylic and Silkscreen on plywood box, 1968
17.35×17.35×14.2ins

앤디워홀의 비누상자

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스타크래프트는 예술에 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유해야 할 만한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도 짧고, 철학을 하는 이들과 친해지기 어려운 것이 스타크래프트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종말'은 '인기의 하락'이라는 저차원적인 인식과 동일시되어 왔다.

스타크래프트가 열풍을 일으키고, 전국에 PC방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던 2000년을 전후해서 처음으로 '스타의 종말'이 '스타페인'들 사이에 회자된다. 스타크래프트의 입지를 크게 줄인 게임 '포트리스' 때문이다. 주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타에 비해 포트리스는 귀여운 캐릭터와 손쉬운 게임 방식으로 여학생들을 PC방으로 향하도록 함으로써 스타크래프트의 'PC방 점유율'을 줄여나간다. 이에 더해 요즘의 '스페셜 포스' 등의 형태로 발전해 여전히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레인보우6' 류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의 'PC방 점유율'을 잠식해 나갔다.

그 때 '스타의 종말'을 말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스타의 인기는 높았고, '스타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디아블로2', '카트라이더' 등의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그런 게임들의 인기가 사그러들고 난 뒤에도 여전히 스타의 인기가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됨에 따라 '쉽사리 스타가 종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스타의 인기'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스타' 자체의 종말에 대한 담론이 되지 못했다.

두 번째 종말론

'스타의 인기'보다 높은 수준의 '종말론'을 게임방송의 유행

에서 찾는 이들이 나타났다. 이것이 스타의 '두 번째 종말론'인데, 얼핏 '예술의 종말론'과도 유사해 보인다. 스타는 본질적으로 게임이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며, '하는 것'이 아니게 될 때 스타는 종말을 고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iTV를 시작으로 온게임넷, MBCgame으로 발전되어 온 게임방송은 스타를 '하지'는 않지만 '보기'는 할 수 있는 많은 팬들을 양산해 냈다. 일부 팬들은 스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극적인 경기를 자주 연출해 내는 임요환과 홍진호 등 스타게이머들을 향해 열광했다.

'프로게이머'의 등장 자체에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던 2000년대 초기에 비해, 유수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가 수 년째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금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른 것이며, 실제로 PC방에서 스타를 즐기는 사람들보다 TV로 스타를 보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인기의 하락' 차원을 넘어선 '즐기는 차원'에서의 돌이킬 수 없는 변화, 일종의 '종말'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차원에서의 종말론도 역시 '예술의 종말'을 고했던 단토의 담론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단토는 헤겔주의자로서 예술의 종말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예술의 종말은 예술가들의 해방이다. 그들은 이제 어떤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입증하기 위해 실험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해줄 수 있다. 예술의 종말에 대한 나의 생각은 역사의 종말에 대한 헤겔의 생각과 비슷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역사는 자유에서 종말을 고한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예술가들의 상황이다."

세 번째 변화

'완전한 해방' 그것이 예술의 종말, 예술의 완성이라면 단토의 '예술'에 대한 견해를 '스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스타크래프트가 될 수 있어야 비로소 '스타의 종말'을 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타를 예술과 동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공군에이스'를 통해 세 번째 차원의 종말론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게임방송은 스타를 '하는 것'에서 '보는 것'의 차원으로 이동시키고 확장시켰다. 그리고 공군에이스는 스타를 '보는' 차원의 것에서 '인정받는' 차원의 개념으로 변화시켰다

고 볼 수 있다. 즉, 공군에이스의 존재는 스타를 하고, 보는 사람들의 범주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차원에서, '공군'이라는 공적 조직의 일원으로 프로게이머가 편입되고 또 그 구성원들이 '스타'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소간의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영향은 미미해서, 공군에이스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는 공군에이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스타와 공군에이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아들이 공군에이스가 좋아 공군에 입대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 근무하게 될 수 있다. 어쩌면 근무지가 변할 수도 있고, 맡는 보직이 달라질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이 스타의 종말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변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게임으로서의 스타'가 '보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세 번째 변화를 겪었다고 보고 있다.

네 번째 변화

내가 생각하는 스타의 의미 있는 변화는 공군에이스의 출현, 즉 세 번째까지다. 이런 변화를 겪는 동안 '스타의 종말'에 대한 긴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스타는 우리 주위에 있고, 그 개념은 오히려 확장되어 왔다.

역사와 예술도 마찬가지다. 헤겔과 단토가 역사와 예술의 종말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그것들은 우리 주위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종말'이 '완성'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종말'이라는 것은 '생각의 차원의 문제 변화' 정도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개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한대로 확장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스타 역시 어느 순간 네 번째 변화, 네 번째 종말, 완성의 단계를 거치게 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어떤 형식의 변화가 될지 짐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의 변화일 확률이 크다. 어쩌면 게임방송의 출현, 공군에이스의 도입과 같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서 스타가 바둑처럼 더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서서히 용인되는 과정 속에 네 번째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본다. ^{AT}

[단토의 '예술의 종말'에 대한 견해는 인터넷 서핑꾼 '로쟈' 씨의 글을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09-10 스타리그에 참가 중인 공군에이스팀



주름으로 고민하는 당신께!

▣ 상병 정 인 | 32전대 제4통제대

자연스러운 노화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그런 자연스럽게도 당연한 일이 내가 나이를 먹고 있다는 세월의 흔적을 알려주기에 어떻게든 주름을 지우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피부를 감싸고 있는 표피는 대체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안을 메우고 있는 콜라겐(Collagen)과 엘라스틴(Elastin), 지방 등은 날이 갈수록 노화로 인해 사라져 마치 공기로 팍 찬 풍선에서 공기가 빠지고 난 후 주글주글해지는 것처럼 변하게 된다. 종종 TV에 나오는 할리우드의 50대 여성 스타들을 보고 있자면 눈가 주름 하나 없는 그녀들의 자기 관리가 우리에게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 주기도 한다. 이들과처럼 영원한 젊음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안티에이징 케어(Anti-Ageing Care)를 시작하자!

주름을 예방하는 자외선 차단제

피부 노화의 주범이 자외선(Ultraviolet Rays)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많은 연구(영국 피부학저널 '07년 7월호, 피부병리학저널 '07년 5월호, 노화성장의 원리 '02년 4월호)를 통해 증명되었으며, 국내외 피부과 의사를 막론하고 피부 관리자, 화장품 연구원, 제품을 판매하는 컨설턴트들에게까지 기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피부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자외선 차단제는 여름에만 바르면 끝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자외선의 양은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비슷하며 그 이미지가 꾸준히 쌓여 얼굴에 주름을 패이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년 365일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챙겨야만 한다. 운전할 때도,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에

도, 여행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방 안에 있을 때마저 수시로 덧 발라야(약 3~4시간마다) 확실한 효과를 장담할 수 있다.

올바른 사용 방법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어쩌면 매우 귀찮고도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꼭 실천하자. 먼저 외출 30분 전에 고루 펴 발라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 30분이라는 것은 자외선 차단 성분이 피부에 밀착되고 나서 활성화되는 시간을 말하는데, 대략 20~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바르는 양도 무척이나 중요한데 너무 적게 바르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500원 동전 크기만큼의(약 2~3ml) 양을 소량에 나누어 겹겹이 덧바르는 것이 포인트다. 본인의 손 터치가 거칠다면 백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브러시를 이용하여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목까지 고루 펴 발라주어야 한다. 손으로 바를 때는 흡수시킨다는 느낌을 가지고 톡톡 두들겨 주도록 하자.

Tip!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SPF(Sun Protection Factor)지수는 15에서 30 사이의 제품을! PA(Protection grade of UVA)지수는 PA++이상의 제품을 선택하자. 또한, 방수(Waterproof) 효과를 가진 자외선 차단제일지라도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발라주어야 안심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를 씻어낼 때는 일반 폼 클렌저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 클렌징 크림, 클렌징 젤 같은 1차 세안제로 2중 세안을 해서 씻어내야 피부에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다.

이미 생긴 주름에 대응하는 방법

이미 생긴 주름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꾸준한 사용이다.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함유된 레티놀(레티닐팔미테이트), 아데노신 등과 같은 성분은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식약청(KFDA) 고시 주름개선 원료들이다.

이 밖에도 코엔자임 Q10, 펩타이드 등이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 결코 주름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름은 화장품으로 지워낼 수 없는 복잡한 인체의 변화이므로 피부 각질층에서 머물다가 사라지는 화장품의 특성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일반 제품보다 더욱 풍부한 보습 성분과 훌륭한 항산화 성분, 최신의 유효 성분이 함께 첨가되므로 피부에 생기를 주고 잔주름 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안전하면서 강력한 보톡스(Botox)나 필러(자가지방 이식 또는 충전물 주입), 고주파 등의 성형 외과적 시술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보톡스는 부패한 통조림에서 검출되는 세균인 보툴리눔 독신(botulinum toxin)을 정제하여 만든 미국 제약회사 엘러건(Allergan)의 상표명이다. 이 보톡스는 깊게 패인 주름에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시술 후 바로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하다. 다만 잔주름이나 피부 탄력에는 효과가 없고 일종의 독소(Toxic)이므로 시술을 원하면 반드시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의 시술 아래 행해져야 한다. 필러의 경우 자신의 지방을 직접 이식하는 자가지방이식이나 젤리같이 생긴 충전물을 주입하여 탱탱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요즘에는 고주파와 같은 비교적 간편한 방식의 주름 관련 시술이 보편화되어 남자들도 고정관념 없이 시도해 볼 만하다. **At**

신선화장품 '제니스웰' 이 알려주는 화장품 신선하게 사용하는 권장기간!

- * 클렌징류 - 12개월
- *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 섀도우류 - 12개월
- * 스킨토너, 에멀전, 크림류 - 10개월
- * 기타 포인트 메이크업류 - 12개월
- * 시트 마스크, 팩류 - 10개월
- * 선크림류 - 6개월
- * 에센스, 립글로스류 - 8개월

선크림이나 에센스의 경우, 개봉했다면 아끼지 말고 듬뿍 사용하는 것이 좋다. 두껍게 자주 열수록 공기와의 접촉이 잦아져 더 빠르게 산화하기 때문이다. 긴급적 진공 펌프나 불투명한 용기에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자. 특히 선크림은 한 철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성분의 효과가 거의 반감되어 효과도 없을 뿐더러 오래된 선크림은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하므로 사용에 주의한다.

화장품 회사별로 저마다 제조일자, 유통기간을 표기하는 방법이 제각각인데 보는 법 정도는 숙지하자. 대부분 수입 브랜드의 경우 'EXP(Expired Date)' 라는 약자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유통기한이다. 예를 들어 'EXP/010810' 이라고 명시되었다면 2010년 8월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며('010810'의 숫자는 일/월/년도이므로 뒤에서부터 해석하세요), 'EXP 12M' 이라고 명시되었다면 12개월 즉, 1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간혹, 'MFD(Manufactured Date)' 라는 약자도 있는데 이것은 제조일자를 뜻한다. MFD로 제조일자를 표기하는 경우 위 권장기간을 고려하면 화장품을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위 기간은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아닌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장기간입니다. 화장품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니스웰' 과 함께하는 안티에이징 케어 EVENT



ZENISWELL

★ 이벤트 퀴즈

피부 노화가 특하~ 심해지는 겨울철!
안티 에이징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화장품은 무엇일까요?
① 클렌징 폼 ② 바디 오일 ③ 자외선 차단제 ④ 진흙 팩

GRAND ZENISWELL COSMETIC BAR OPEN!

★ 이벤트 기간

응모 기간 : 2009년 12월 1일 ~ 2010년 1월 15일까지
당첨 발표 : 2010년 1월 22일
선물 지급 :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며 당첨 선물은 2010년 1월 20일 전후로 발송됩니다.

★ 이벤트 응모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
양식을 꼬옥~ 지켜주세요. ^o^

(양식) 정답/이름/전화번호/집주소/군인 여부(군인일 경우 소속과 계급을 쓰세요.)
(예제) 3번/홍길동/010-1234-5678/서울시 종로구 종로동 1004번지/공군 중위
(메일) cosmen@naver.com

★ 이벤트 선물

미백과 주름 개선, 보습 기능을 부여하여 겨울철 피부 노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해 주는 안티에이징 기능성 3종을 드립니다. 비타민 C가 함유되어 미백효과가 우수한 화이트닝 VC 세럼과 비타민 E가 함유된 링클 BE 세럼, 풍부한 수분과 영양으로 건조한 목 피부까지 관리할 수 있는 넥 크림으로 구성된 10만원 상당의 3종 세트를 10분께 드립니다.

- * 제니스웰 슈퍼알엑스 화이트닝 VC 세럼 30ml
- * 제니스웰 슈퍼알엑스 링클 BE 세럼 30ml
- * 제니스웰 슈퍼알엑스 링클 모이스트 크림 50ml





차의 성지인 일지암(一枝庵)에서 숯불로 차물을 끓이는 모습

다신전 제5장 화후(火候)

글·사진 준위 전재인 | 제11전투비행단

요 즘 차(茶)와 관련된 행사에 가보면 보편적으로 한복을 곱게 입고 차 우리는 포법(泡法)을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만큼 차를 우릴 때는 포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단체가 개발한 행서(行序)에 따라 반복 연습으로 익히고 숙달시켜 외적인 미(美)를 강조하여 마치 그것이 차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포법은 차(茶)를 우리는 순서이다. 차를 우리는 것은 끓인 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신전 화후(火候)에서는 차를 잘 우리는 것은 물을 끓일 때 불을 잘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고 했다.

그 옛날 목재를 뿔감으로 사용하던 시절처럼 숯불로 물을 끓여 차를 우리는 일은 21세기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물을 끓이는 원료가 세월이 변하여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숯의 역할이 전기와 Gas로 대체 되었지만 차물이 끓는 과정은 우리 선조들이 숯불로 차를 우릴 때나 최첨단 과학으로 차를 우린다고 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간편한 전기장치나 Gas불로 물을 끓여도 탕관의 변화를 잘 살피는 것이 다도의 중정(中正) 사상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다도는 철학이다. 차(茶) 만들고 보관하고 물을 끓이고 우려 마시는 음다(飲茶)생활 전반을 다도라 한 것은 마시는 음료인 차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며, 차를 상징으로 삼고 그 상징이 갖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때문이다. 도(道)란 길과 방법이란 뜻으로 준수해야 할 덕이나 만물의 근원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제례 때 국을 내리고 차를 올렸던 것을 차가 사라진 지금도 냉수를 올리며 헌다(獻茶)라 하는 것을 보면, 차 한 잔이 바로 감로(甘露)이다. 전통 혼례에서 보통 신랑 측이 결혼식 전에 신부 쪽에게 납폐(納幣,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일) 받은 것들을 죽을 때 관 속에 넣어 간다는 소중한 함에 차 씨를 넣는 봉차(封茶)의 뜻은 변하지 않는 혼인의 신성함을 나타내고 한번 뿌리를 내린 차나무를 옮겨 심으면 죽는 차의 특성에 따라 일부종사(一夫從事)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가뭄이 들면 임금이 기우제를 지낼 때도 차를 사용했다는 것만 짐작해도 차를 단순히 마시는 기호음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우의 다경(茶經)에서 말하는 중국의 다도 정신인 정행검덕(精行儉德)은 “행동은 깨끗하고 바르게 하며 생활은 검소하고 성품은 덕스러워야 한다.”는 것이고, 일본의

다도 정신인 화경청적(和敬淸寂)은 “차를 마시면서 서로 화목하고 존경하며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다도 정신은 초의선사의 동다송(東茶松)에서 말하는 중정(中正)이다. “차의 체(體)인 물과 신(神)인 다신(茶神-색과 향과 맛)이 온전해도 우릴 때 중정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일단 우려낸 차의 색과 향이 좋아야 맛있게 잘 우려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봄에 찻잎을 채취할 때부터 시작하여 잘 만들고 보관하여 물을 끓일 때도 너무 오래 끓여 노수(老水)가 되지 않게 하고 덜 끓여 맹탕이 되어 차의 향기와 맛과 색이 제대로 우려나지 않는 것이 중정을 잃은 것이고, 차의 양이 적어 차 맛이 싱겁고 양이 너무 많아 쓰고 향기가 떨어진 것과 다관에 너무 오래 두거나 일찍 우려낸 것도 중정을 잃은 것이다. 중정이 잘 된 것은 차의 성분이 잘 우려나 효능이 우수함을 말한다.



- ① 불이 약하면 맹탕이 됨
- ② 불이 너무 강하면 노수(老水)가 됨
- ③ 가정용 Gas불로 찻물 끓이는 모습
- ④ 물이 끓을 때 Gas불을 소화 후 찻물이 뜬이 뜨는 과정. 가장 이상적임
- ⑤, ⑥ 800w 전기 화로로 물 끓이는 모습
- ⑦ 아파트 주방기구에 물 끓이는 모습

우리의 다도 정신은 중정(中正)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차의 색(色), 향(香) 그리고 맛(味)은 차의 본성과 같이 인간의 타고난 본래의 분별없는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침이 없는 사고방식과 격조 높은 삶의 가치와 정신이야말로 바람직한 인간 형성이고 사회를 이루는 원리를 제공하며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재창조하는 것이다.㉔

◎ 불 조절하는 법

1. 차 생활의 첫째는 쑤주(烹主, 차 우리는 사람)는 불을 잘 다루는 일이다.
2. 화로에 불이 활활 피워지면 주전자를 위에 놓고 부채질을 가볍고 빠르게 하고,
3. 끓는 소리가 나면 부채를 더욱 짧게 빨리빨리 부치는 것이 불과 물의 조절이다.
4. 불이 약하여 물이 덜 끓어 맹탕이면 차의 맛이 나타나지 않고,

5. 불이 너무 강하면 찻물이 노수(老水)가 되어 차의 맛을 잃는다.
6. 불이 약하거나 너무 강한 것은 중화를 잃은 것이며 차(茶)를 우리는 방법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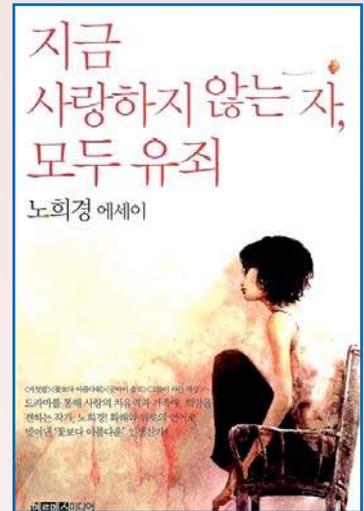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찻물 끓일 때 주의사항

1. 전기 화로에 사용되는 600W와 800W 두 가지 열선이 있는데, 600W는 돌솥에 사용하기에는 다소 약한 편이다.
2. Gas불은 냄새도 거의 없고 화력 조절이 아주 편리하여 돌솥이나 내열 주전자, 그리고 다양한 당관을 사용하여 물 끓이는데 가장 보편적이나 끓는 시기를 놓치면 노수(老水)가 될 수 있다.
3. 전기포트를 많이 사용하나 이것은 좋은 찻물을 얻을 수 없다.
4. 물을 끓여서 보온하는 것은 차 맛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 노희경 지음

클 중령 강성구 | 재경공보실장



때는 바야흐로 1984년 가을의 어느 일요일, 공사 2학년 생도였던 저는 명동성당 인근에 있었던 유네스코회관 스카이라운지에 앉아 한 여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좋아했던 이 여학생을 확실한 애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마음을 접지는 생각으로 짙막한 편지를 보낸 그 주말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번 주 일요일 저녁 여섯시까지 명동 유네스코회관으로 나와라. 만약 네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나는 네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않겠다”라는 요지의 편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뭐 이리 전투적인 구애편지를 보냈는지 한심하다 못해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만 약간은 오버(over)된 군인정신에 물들어있던(?) 저의 연애편락은 이렇게 그 수가 낮았습니다.

물론 그 여학생은 나오지 않았고 세월은 우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지난달 아주 우연히 사반세기(25년) 만에 이루어진 그녀와의 통화는 그래서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중년이 되었지만 마음까지 함께 늙지는 않게 만드신 조물주의 배려로 저는 아주 오랜만에 청년 사관생도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지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사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내면에 사랑이 넘치고 있어서 그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사랑이 시작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상대의 뒷면에 감추어져 있다가 자주 만나고 보면서 사랑이 시작되는 유형이지요. 저의 첫사랑은 아마도 첫 번째 유형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고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했던 생도시절 저는 상대가 누구였던 염색체가 XX이고 제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후보

군이 근처를 지나가면 바로 사랑을 시작하는 스타일이었지요. 이런 사랑의 폐해는 결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도시절은 변변한 연애는 물론 애정의 도피행각 한번 못해보고 다 지나간 듯합니다.

물론 나이가 든 지금은 내면에 사랑이 넘쳐 나와 스스로 연애감정을 작동시키는 기능은 거의 없어진 듯하지만 아직도 드라마에서 멋진 연애 스토리가 나오면 시선을 못 떼는 것으로 보아서 그 기능이 완전 마비 상태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노희경은 아주 유명한 드라마 작가입니다. <거짓말>, <꽃보다 아름다워>, <굿바이 솔로>, <그들이 사는 세상> 등을 집필했지요. 인간의 진정성과 가족과 사랑에 대한 따뜻한 성찰을 주제로 작품을 쓰는 노희경의 산문집인 이 책에는 사랑에 상처받고 그 딱지가 스스로 굳어지며 얻어진 그녀만의 사랑학 이론이 조밀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한 지 수백만 년이 되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변함없이 우리 인간의 중심에서 끊임없는 기쁨과 좌절을 선물해주며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추운 겨울 맨발의 슬리퍼 차림으로 자신을 버린 남자친구 집 앞에서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열정에서부터 미움이 켜켜이 쌓인 아버지와의 화해에 이르기까지 사랑에 대한 그녀의 진솔한 고백성사들은 인간에게 사랑은 숙명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해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호흡이 가능한 가혹한 운명을 타고났음을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샘물이 팔팔 올라오는 젊은 병사들은 물론 그 과정을 고스란히 겪고서도 마치 사랑은 땅속의 화석에서나 발견되는 것인 양 냉정해 보이는 중년의 간부들 모두 첫눈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한번 읽어 볼만한 책입니다. **4+**



하늘의 왕자 보라매

글 · 사진 준위 현동선 | 제20전투비행단

평온하던 천수만의 드넓은 농경지에서 먹이 활동을 하던 수많은 겨울새들에게 비상 상황이 발령되었다. 새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바뀌었다. 넓은 눈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기러기들과 오리들이 모두 긴장을 하여 목을 길게 빼내어 경계를 하고 있고, 무리의 가장자리에 있는 기러기들은 계속해서 안전지대인 무리의 중심부로 이동을 하고, 물위에 있는 오리들도 겁을 먹은 듯 무리 중심으로 분주하게 이동을 하였다.

보라매가 하늘에 떠 있었다. 날개를 넓게 벌리고 큰 원을 그리면서 하늘의 왕자답게 유유히 하늘 높이 상승하고 있었다. 상승기류를 타고 점차 하늘 높이 오르더니 이내 한 점이 되어 나의 시선에서 멀어져 갔다.

다시 천수만에는 평화가 찾아 왔다. 농경지에서 먹이 활동을 하던 기러기들이 분주히 눈 위에 떨어진 벼를 주워 먹기 시작했고 해미천의 오리들도 물장구를 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라매는 날개를 펴고 하늘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새들에게 경계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보라매의 정확한 뜻은 참매 젊은 새의 애칭으로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한창 혈기가 왕성하고 투지가 넘치는 용맹한

매를 가리킨다. 사람으로 말하면 20대 초반의 청년기라고 할 수 있다. 매를 다루는 응사들은 야생에서 번식한 참매의 새끼인 보라매를 잡아서 길들인 후 꿩 사냥에 사용하는데,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보라매가 사냥 솜씨가 좋아서 중국 사람들이 탐을 내기도 하였다. 남색과 자주색이 합쳐진 보랏빛 몸 빛깔이 청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매라고 부르기도 하며, 매의 상징인 날렵, 세련, 치밀, 목표완수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새이다.

보라매는 공군을 상징한다. 특히, 젊은 조종사를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조종사를 양성하는 부대를 '보라매의 요람'이라고도 한다. 결국 공군을 보라매로 칭하는 것은 투지가 넘치는 용맹성과 신속성으로, 적기가 나타나면 단숨에 격퇴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공군

- ① 해동청보라매 : 생후 1년 이내의 털갈이가 안 된 청년기의 참매
- ① 수진이 : 집에서 사람 손에 의해 꿩을 사냥하기 위해 길들여진 오래된 참매
- ① 산진이 : 야생에서 자란 오래된 참매
- ① 날진이 : 야생의 송골매
- ① 조롱태 : 황조롱이
- ① 난춘이 : 새매 수컷



① 매가 오리를 잡아서 먹던 중 위험을 느끼자오리를 발로 움켜쥔채 날아가려 하고 있다.
 ② 보라매의 늪늪한 자세
 ③ 보라매의 부리부리한 눈과 날카로운 부리
 ④ 참매가 먹이를 노리는 모습

의 위상 때문이라.

이렇게 용맹 있고 멋진 보라매를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아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해 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답이 매의 한 종류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생뚱맞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징적인 새라고 대답하는 병사도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조종사들은 보라매를 자세히 알고 있어서 조류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 짓는 것을 좋아해서 꿩 한 종류만 하더라도 수꿩은 장끼, 암꿩은 까투리, 꿩의 성장하지 않은 새끼는 꺼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참매의 1년이 지나지 않은 새끼를 이렇게 ‘보라매’라고 칭하며 자란 조건과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

보라매의 생태

겨울이 되면 겨울새들이 많이 도래하는 곳에서 보라매의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지만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새는 아니다. 최근에는 서산 천수만의 간월호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곳에는 보라매가 좋아하는 먹이가 많기 때문이다. 농경지가 한눈에 보이는 높은 나무에 앉아 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바로 공격하기도 하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큰 원을 그리며 날고 있다가 적당한 먹잇감을 향해서 돌진하기도 한다. 이런 정확한 사냥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표적인 사냥매로 길들여 왔다.

보라매는 혼자서 생활할 때가 많으며 움직이지 않는 새보다는 날고 있는 먹이를 노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마치 최신형 미사일이 목표물의 진로를 한 치의 오차 없이 날아가 목표를 맞추듯, 도망가는 새가 이리저리 날아가더라도 매우 빠르게 날아가 먹이를 추적하고 먹이에 도달하면 순식간에 다리를 쭉 뻗어 예리한 발톱으로 먹이를 움켜쥔다. 다른 매처럼 하늘에서 빠르게 내려오면서 먹이를 발로 차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일단 잡은 먹이는 예리한 부리로 찢어 먹고, 소화 가 되지 않는 털과 뼈는 부엉이처럼 뱉어내는 것이 보통이다. 종종 하늘에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평소에는 잘 울지는 않으나 경계할 때에는 킷, 킷하고 예리하게 소리를 낸다. 이럴 때 주변의 많은 새들은 몹시 긴장을 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공군기지에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무인정보 체계에 참매의 소리를 저장했다가 기지 주변에 새가 많이 몰려오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둥우리는 4~8m의 나무줄기 가까운 가지에 있으며, 나뭇가지를 쌓아 올려 접시 모양으로 둥근모양의 두꺼운 둥우리를 튼다. 크기는 까치둥지를 반으로 잘라 놓은 것 같은 정도의 크기이며, 주로 지난해의 둥지나 다른 종류인 수리들의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둥우리를 보수해서 사용할 때도 있다.



참매가 먹이를 노리며 금방이라도 날아갈 자세



보라매의 날카로운 발톱

산란기는 5월에서 6월경까지이며, 보통 2~4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옅은 청색 또는 옅은 푸른 잿빛으로 얼룩무늬가 없는 것이 보통이나 드물게는 붉은 갈색의 얼룩무늬가 있는 것도 있다. 알은 품기 시작한 후 36~38일이면 부화되고 그 후 41~43일이면 둥지를 떠난다. 주로 암컷이 알을 품으며 이때 가슴 깃털을 펴서 알을 가슴 안으로 몰아 놓은 후 밀착시킨다. 새끼가 부화된 직후에는 수컷이 먹이를 잡아다 암컷에게 전해주며 암컷이 이것을 새끼에게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서 주고 새끼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암수가 함께 먹이를 잡으러 다닌다. 작은 동물인 토끼를 좋아하지만 주로 조류를 먹이로 하며 특히, 꿩 사냥에 능하다.

우리나라는 13세기에 몽골의 영향을 받아 주로 꿩을 잡는 매 사냥이 성행하였으나 남획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줄어들어 지금은 엄격한 규제와 국제적인 협약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을 만큼 귀한 새가 되어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323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시치미

보라매를 잡아서 길들인 후에는 매의 꼬리 부분에 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붙이는 이름표가 있는데 이것을 시치미라고 부른다. 이것은 쇠뿔을 얇게 갈아서 만든다. 우리나라 말 중에 '시치미를 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매의 꼬지표를 떼어낸다는 것으로 주인을 알 수 없게 만든다는 뜻이다.

즉, 매 사냥을 나갔다가 매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

었는데, 이때 남이 잃어버린 매를 잡아서 시치미를 떼고 자신의 시치미를 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하고도 안한 척, 알고도 모르는 척 할 때 매의 입자를 모르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시치미를 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응사 박용순 씨와의 만남

자연 상태에서는 보라매의 사냥술을 직접 보기가 어려워 지난달 군산세계철새축제를 찾았었다. 전북 군산시에서는 작년 이어 지난달 11월 11~15일 금강철새조망대 및 금강호 일대에서 열리는 '제6회 군산 세계철새축제'에서 전통 매사냥 시연과 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미리 전화를 한 덕분에 행사장에 도착하자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매사냥 기능보유자 박용순 씨가 친절하게 맞아 주셨다. 마침 옆 텐트에서 야생조류보호운동을 하던, 잘 알고 있는 조류학자 한 분이 나와서 공군에서 친환경적인 조류퇴치활동을 하는 현역분이라고 나를 소개하자 더 친근하게 매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다. 전통 매사냥은 박용순 씨가 천연기념물인 참매를 이용해 꿩을 사냥하는 장면을 직접 연출하기로 하였다. 행사장에는 보라매와 참매, 송골매와 황조롱이가 있었는데, 행사장을 찾아 온 관람객들의 팔에 새를 얹게 하여 매에 대한 친근감을 키워주는 체험행사도 하였다.

드디어 매사냥 시연이 실시되었다. 매사냥 시연에는 온전한 야생 꿩을 구하기 어려워 사육한 꿩 20마리가 준비되었다. 참매가 있는 지점에서 20여m 떨어진 곳에서 꿩을 공중



⑦ 보라매의 공지깃에 있는 시치미
 ⑧ 우리나라 최고의 무형문화재인 박용순 응사

에 날리자 참매가 순식간에 날아가서 꿩을 단숨에 낚아채는 광경을 선보였다. 몇 주 전 텔레비전에서 박용순 응사 부자의 꿩사냥에 관련된 프로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화면을 통해서 본 매의 눈동자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부리부리한 눈동자와 날카로운 부리, 어떤 새들도 단숨에 낚아채 숨통을 끊을 것 같은 매서운 발톱은 전형적인 맹금류의 모습이었다. 사람에게 길들여진 매도 이렇진대 하물며 야생에서 자란 보라매는 얼마나 사납고 날쌔던 것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보라매의 퇴치

보라매를 활주로 상공에서 퇴치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보라매의 습성상 살아 있는 토끼나 커다란 새를 잡아 먹기 때문에 활주로 내의 포유류나 조류가 들어오지 못하게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활주로 내의 조류퇴치를 철저히 하면 보라매의 접근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계속해서 상공에 머물러 있다면 항공기의 비행시간을 잘 확인한 후 무선조종항공기를 활용하는 것도 일책이다. 다만 무선조종항공기는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맹금류들은 자기 몸보다 작은 것이 다가오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공격을 하기 때문이다.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활주로에 긴 불꽃을 내며 펠콘 편대가 비상출격을 한다. 비상 출격 지시가 내려진 지 몇 분

만에 전투기는 벌써 푸른 하늘에 한 점이 되어 버렸다. 마치 보라매가 큰 날개를 편 채로 하늘에서 위용을 펼치는 것처럼, 그리고 목표를 향해 돌진을 하는 것처럼 전투기 편대는 타깃을 찾아 떠났다. 보라매가 하늘에 떠 있는 것만으로 모든 새들이 공포를 느끼듯, 천하무적 펠콘 편대가 푸른 하늘에 떠있는 한 우리의 아름다운 하늘은 언제나 안전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은 언제나 지나 영원하리라! ㉞

* <Bird Alert!>은 월간 「공군」 2007년 6월호(Vol.348)에 그 첫 연재를 시작하여 2009년 12월호(Vol.378)를 마지막으로 약 2년 7개월 동안 총 31편의 글을 소개했다. 칼럼의 저자인 현동선 준위는 비행단 내에서 조류의 생태를 파악하여 무작정 죽이기만 했던 조류를 쫓아내어 살리는 방법으로 이끈 조류담당자로 항공기와 조류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동안 현동선 준위가 보여주었던 기고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석 잔의 차로 운명을 바꾸다

그림 김영은

© 일일명영교육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편지」 中

일본 역사상 가장 이름 높은 장군 중의 한 사람인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는 이름을 떨치기 전 칸은지(觀音寺)라는 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당시 막부의 수장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이 사찰을 찾아 차를 한잔 달라고 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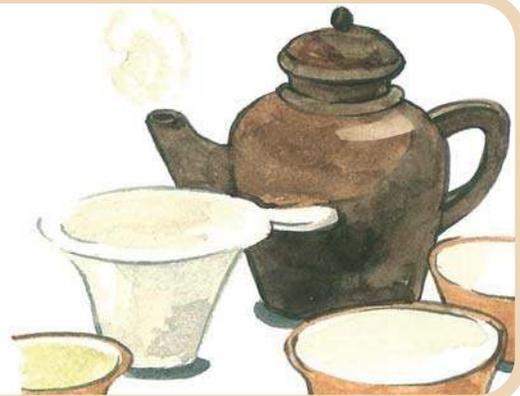
이시다 미쓰나리는 친절하게 그를 맞이하여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커다란 잔에 미지근한 차를 따라주더니, 두 번째에는 중간 정도 크기의 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주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또다시 차를 달라고 하니 이번에는 작은 잔에 뜨거운 차를 내놓았습니다.

공금함을 참지 못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차 석잔의 양과 온도가 모두 다른지를 물었습니다. 이시다 미쓰나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 큰 잔에 미지근한 차를 대접한 것은 목이 마른 듯하여 빨리 마실 수 있도록 적당한 온도에 양을 많이 한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이미 목을 축였으니 차의 향내를 맡을 수 있도록 양을 줄이고 조금 따뜻한 물에 차를 우려낸 것이며, 세 번째에 뜨거운 차를 작은 잔에 따라 드린 것은 차를 두 잔이나 마셔 충분히 목을 축였을 것이기에 온전히 차의 향만을 음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의 세심한 배려에 크게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그를 자신의 수하로 삼았고, 이시다 미쓰나리는 이를 계기로 명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차 석잔의 세심한 배려가 접에서 시종드는 사람으로 일생살아가기로 되어있던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배려는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후를 좀 더 아름답고 살 만하게 만들 뿐 아니라, 배려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커다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이벤트나 선물보다는 작은 배려에 사람들은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무심코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배려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합니다.



매서운 바람을 녹여내는 훈훈한 **선임병의 마음**

이병 **한동혁** (680기)
30단 정훈공보실



상병 **이우원** (665기)
30단 정훈공보실

취재 · 원고정의 편집실 사진 중사 손승일 | 30단 정훈공보실



대한민국공군

〈이등병이 쏜다〉 취재 하루 전, 급히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애당초 취재를 기획했던 생활관의 병사들이 신종플루 의심으로 격리가 되었던 소식이였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이라 난감했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얼마 후,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고 내 고민에 종지부를 찍었다. 차갑게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녹여내는 훈훈한 사연을 접했고 그곳은 바로 30단이였다. Af



필승!!!

30단 정훈공보실 이병 한동혁입니다. 저보다 훨씬 일찍 군에 들어오신 이우원 상병님이 들으시면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저도 어느덧 사회인에서 공군인으로 변화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훈련소와 특기학교에서 굳어버리고 딱딱해진 마음을 풀어주시는 이우원 상병님! 실제로 말로 하기 부끄러워 이렇게 글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위약에 말수도 없고 내성적인 성격에 적응을 잘 못할 것이라 겁부터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흑어나 실수를 해도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잘못을 바로잡아주시던 이우원 상병님 덕분에, 자대 배치 후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이렇게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군 입대 전에 가까운 분들이 말하길 “군대에 가면 선임들이 못살게 군다, 혼내기만 한다, 짓궂은 장난만 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군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이우원 상병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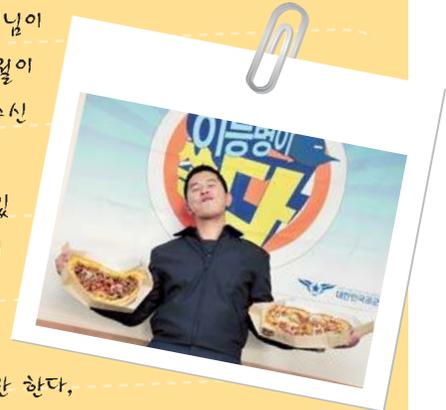
얼마 전, 책 읽는 30단 캠페인 시작 후 만들어진 도서관을 관리하는 정훈병으로 도서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라는 거리가 멀었던 저에게 책의 분류, 정리 등이 생각보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처음 맡게 된 일인 만큼 막막하지만 실수하기는 싫었는데, 그때 예외 없이 목장갑을 끼고 도서관 문을 여시던 이우원 상병님.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차갑기만 할 줄 알았던 군대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면서 세면도구가 모자라지 않느냐며 사다주신 세면도구들, 아무래도 부대에 있으면서 모자라는 게 많아서 고민이 많음에도 말하지 못했는데 생각해 주셔서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우원 상병님이 전역하시기 전까지 1년 정도 남으셨는데, 그 동안에도 이런 선·후임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신종플루가 휴가도 제한될 만큼 위험한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휴가 풀리면 밖에서 군 생활 이야기를 하며 술 한 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이등병이 쏜다’ 코너에 훈훈한 사연을 신청하시면, 월간 ‘공군’ 취재진이 각 부대를 방문하여 감사하고 싶은 동료에게 간단한 피자파티를 열어드리고 그 사연을 월간 ‘공군’에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 : tribune44@af.mil (인트라넷), tribune44@gmail.com (인터넷)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회화 3선

글 박희숙
작가, 서양화가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지음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의 예술적 자산으로서 파리를 방문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관람하고 싶은 곳이다. 수 천점이 넘는 소장품을 자랑하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왕이 거주하던 궁전이었지만 혁명 이후 1783년 프랑스 국민회의가 루브르 왕립 미술관을 대중 미술관으로 개조해 일반 대중들에게 개방했다.

루브르 박물관의 자랑이자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의 〈모나리자〉다. 탁 트인 실내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머리를 베일로 덮고 복잡한 자수로 장식된 어두운 색의 가운을 입고 앉아 있는 여인을 그린 초상화다. 모나리자의 모델은 피렌체 공화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상인 ‘조 콘다’가 아내 ‘리자’라는 배경이 가장 유력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공식 초상화의 우울한 분위기를 제거하기 위해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 악사와 광대를 화실로 초청해 모델의 순간적인 표정을 포착해 스케치해 아름다운 미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배경에 있는 돌산과 작은 오솔길과 오른쪽 말라붙은 강바닥이 보이는 황량한 풍경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 나라

를 여행하면서 본 풍경들을 상상해서 그린 것으로 계절이나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인물을 화면 앞쪽으로 더 가깝게 배치했다. 또한 윤곽선을 강조했던 이전의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과 달리 명암법을 이용해 풍경과 인물이 구별 짓기 어려울 정도로 일치감을 보여주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작품을 의뢰인에게 전해주지 않고 1516년 프랑수아 1세의 초청을 받고 프랑스로 이주할 당시에 가지고 왔다. 한때 〈모나리자〉는 빌리르 궁의 나폴레옹 개인 침실에 걸려 있다가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져 18세기에 최초로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다.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품 중에 환상과 자유로운 창조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으로는 보쉬의 〈어리석은 자들의 배〉이다. 이 작품은 동시대에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판과 해학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배 안에서 수도사와 두 명의 수녀, 그리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있으며 거위를 잡기 위해 뚝대로 올라가는 사람, 화면 오른쪽에는 먹은 것을 토해내

는 사람이 있으며 물속의 인물들은 배에 오르려고 하고 있다.

루트를 든 수녀와 수도사는 매달려 있는 크래커를 먹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는 포도주 병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 작품에서 수도사와 수녀는 탐욕을 상징하고 있는데 당시에 왕성한 식욕과 성욕에 빠져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성직자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중앙 돛대는 풍요의 나무이며 광대는 어릿광대의 지휘봉을 들고 허리춤에는 종을 잔뜩 매단 채 풍요의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 광대는 당시 사람들의 유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왕에게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이 작품에서 광대는 교활함과 죄를 암시한다. 배경의 황금색의 바다 풍경은 인류가 죄를 짓기 전 아름다운 세계를 상징한다.

히에로니무스 보쉬(1450~1516)는 당시에는 획기적인 화법을 사용해 북유럽 화가들 중 처음으로 일상을 통해 인류의 악을 다루었다. 그의 이 작품은 인문주의자 세바스티안 브란트가 지은 <어리석은 자들의 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으며 인류의 도덕적 무질서를 고발하고 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고 있는 작품이 외젠 들라크루아(1798~1863)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다. 샤를 10세의 절대주의 체제에 반발하여 파리 시민들이 일으킨 소요 사태 중 가장 격렬했던 1830년 7월 28일의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한 이 작품은 정치적 목적을 담은 최초의 근대 회화다.

하늘을 덮고 있는 포화 연기 사이로 여인이 중앙에서 깃발을 들고 민중을 이끌고 있고 옆에 총을 든 어린 소년과 총칼을 높이 치켜든 사람들이 돌과 보도블록, 건축물로 세운 임시 바리케이드를 넘어 전진하고 있다. 어두운 하늘은 혼란스러운 대적 상황을 암시한다.

화면 오른쪽 포화 연기 사이로 노트르담 성당이 보인다. 혁명 당시 노트르담 성당의 탑에 아침부터 삼색기가 꽂혔다. 여인은 프랑스 대혁명 당원이 쓰던 붉은 모자 프리지아를 쓰고 오른손에 삼색기를 들고 있다. 삼색기는 1789년 루이 16세가 봉기군의 적색색 모표를 자신의 흰색 문장과 결합하여 탄생한 것이다.

여인이 들고 있는 삼색기는 자유와 평등, 박애를, 총을 든 어린 소년은 프랑스 미래를 상징한다. 7월 혁명 당시 굶주린 고아들이 혁명에 많이 참여했다.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인이 실제의 인물이 아니라 자유의 여신의 의미를 담

고 있는데, 고대 승리의 여신에서 영감을 받아 표현한 것이다. 자유의 여신은 화면 앞 길거리에 방치된 시신에게 느껴지는 잔인함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들라크루아는 혁명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지식인으로 사건의 요점을 확대시켜 사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

루브르 박물관의 규모가 크지만 규칙이 있다. 조각은 무게와 크기 때문에 1층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천장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위층에서 회화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작품들은 문화와 학파, 나라 그리고 세기별로 전시되고 있다. 하지만 루브르 박물관이 다양한 문화 예술품들을 소장하고 있지만 동양의 작품은 거의 없는 것은 귀족 취향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

<모나리자>-1503~1506년경

목판에 유채, 77*53

<어리석은 자들의 배>-1500년경,

목판에 유채, 58*33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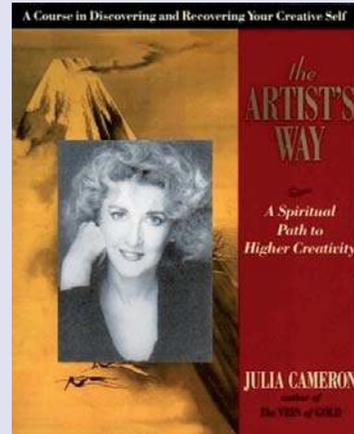
1830년, 캔버스에 유채, 260*325



그냥 한번 해본다고? 정신 차려요!

클 이미도

작가, 외화번역가
 <나의 영어는 영화관에서 시작됐다>
 <이미도의 아이스크림 천재영문법> 지음
<http://blog.naver.com/midomiho>



줄리아 카메론의 대표작 <아트스트웨이>

어느 팔방미인 아티스트의 좌절

줄리아 카메론 Julia Cameron은 팔방미인입니다. 아티스트인 그녀는 소설가, 시인, 시나리오 작가, 저널리스트, TV 프로듀서, 영화감독, 문예창작 강사, 작곡가로 활동하기 때문에 팔방미인이 틀림없지요. 그런 카메론이 1970년대 후반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걸 이겨내려고 알코올에 탐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에 빠지게 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혼 후유증이었습니다. 카메론은 대중 문화 잡지인 <롤링스톤>에서 기자로 일하던 시절 결혼했고, 영화 시나리오를 함께 쓰는 등 남편의 창작에 지대하게 기여했지만 늘 남편의 후광에 가려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카메론의 남편은 당시 <택시 드라이버(Taxi Driver)> 등으로 성공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라며 자문하며 정체성 혼란에 빠져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혼을 택했던 것인데요, ‘정신을 차리든가, 알코올에 빠져 영영 나락에 떨어지든가’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카메론은 불현듯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잠에서 깨어 향긋한 커피 향에 취해 봐요!’ 이 문구는 어느 커피 브랜드의 홍보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표현이 ‘정신을 차려라. Open your eyes.’의 뜻으로도 쓰이지요.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을 차린 카메론은 재기를 ‘하느냐(Do), 마느냐(Do not)’의 기로에서 눈을 떴으며, 잠재워둔 창조성의 눈도

떴으며, 그런 결실로 그녀가 쓴 베스트셀러 <아티스트 웨이 The Artist's Way>로 화려하게 재기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책을 텍스트로 ‘창조성 워크숍’을 이끌면서 자기처럼 창조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요. 카메론이 책에서 설파하려 한 메시지는 다음의 글로도 압축이 가능할 것 같아요.

-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사고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 노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놀이는 변함이 없는 젊음의 비결입니다.
- 책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독서는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역경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다.
-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생활에 향기를 더해 줍니다.
- 웃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웃음은 영혼의 음악입니다.
-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주는 일은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삶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실천의 신념, 긍정적 사고의 전도사인 앤 랜더스

〈시카고 썬 타임즈(Chicago Sun-Times)〉는 1940년대 초부터 필명 ‘앤 랜더스(Ann Landers)’로 인생 상담 칼럼을 연재해 왔습니다. 앞에 소개한 글은 앤 랜더스의 글입니다. 앤 랜더스가 대표적인 칼럼들을 묶어 펴낸 책의 제목은 카메론이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외쳤음직한 표현처럼 ‘Wake Up and Smell the Coffee’입니다. 실천하는 신념(active faith)과 긍정적 사고(positive thinking)를 역설하는 이 책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실천과 책임을 이야기할 때 즐겨 인용하는 ‘The Everybody, Somebody, Anybody, Nobody Story’입니다.

The Everybody, Somebody, Anybody, Nobody Story

“모두(Everybody), 누군가(Somebody), 아무나(Anybody), 누구도(Nobody) 등 네 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중요한 일이 생겼고, 누가 그 일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의논했지요. 그 결과 ‘모두’ 맡기로 했고, ‘누군가’는 할 거라고 ‘모두’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지 않았으며, ‘모두’의 일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회를 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임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안 했다는 걸 깨닫자 ‘모두’는 ‘누군가’를 탓했습니다.” This is a story about four people: Everybody, Somebody, Anybody and Nobody. There was an important job to be done and Everybody was asked to do it, Everybody was sure that Somebody would do it, Anybody could have done it, but Nobody did. Somebody got angry (about that) because it was Everybody’s job. Everybody knew that Anybody could do it, but Nobody realized that Somebody wouldn’t do it. And (It ended up t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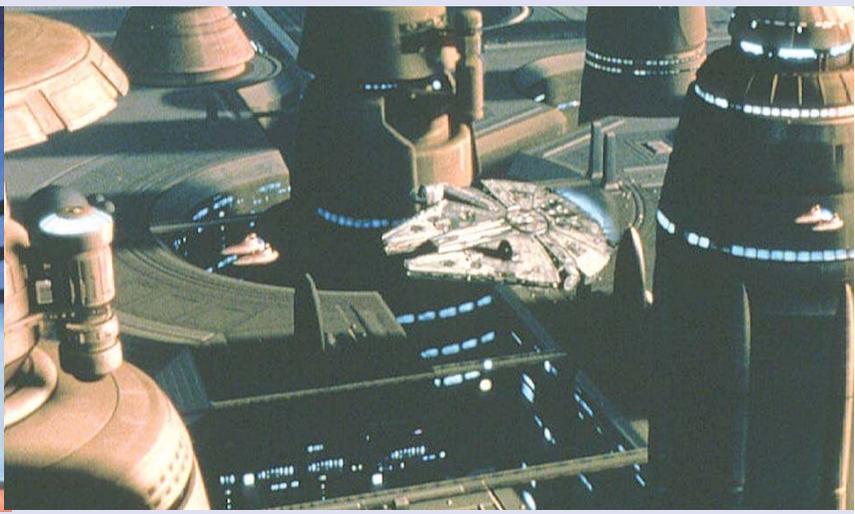
Everybody blamed Somebody because (when) Nobody did what Anybody could have done. 어쩌면 이들은 모두 한번 해봐? 라고 생각만 하고는 ‘나 몰라라!’ 했을지도 모르지요.

한번 해보겠다는 정신으로 안 돼!

‘한번 해보지, 뭐!’ 식의 태도에 일침을 놓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타워즈-에피소드 5 Star Wars Episode V〉입니다. 〈제국의 역습(The Empire Strikes Back)〉이란 부제가 붙은 이 영화에는 제다이 스승인 요다가 루크 스카이워커를 지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포스(the Force)’를 가르치려 할 때 루크가 포스의 힘을 터득해야 하는 수련이 도무지 못 미덥다는 태도로 이렇게 불평합니다. “한번 해보죠. I’ll give it a try.” 그러자 요다는 제자에게 의지를 다잡으라며 엄중하게 충고합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정신으로는 안 돼.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러니 선택해. No, Try not, Do or do not, There is no try.” (4)



〈Star Wars Episode V, 제국의 역습 중에서〉



약속을 지키다

- 전투병을 후송하는 항공의무후송팀의 이야기 -

≡ Matthew McGovern 하사 사진 Desiree N. Palacios 병장
 원문 미 공군 <Airman> Magazine 번역 이재훈 | 번역가

모든 미 공군 요원 및 그 가족들이 사용 가능한 고급 서비스가 있는 것을 아는가. 하지만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바로 환자후송 서비스로서 공군인들과 약속을 지키는 신념하에 항상 빈틈없이 이루어진다. 공군 항공의무후송팀의 목표는 부상자를 집까지 안전하게 후송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모든 것이 전장에서 정신적 외상(Trauma)으로부터 시작된다. Ricardo Samudio 이병은 2008년 12월 1일, 이라크 바그다드 서부에서 부상을 당했다. 그가 타고 있던 험비 차량에 두 개의 수류탄이 날아든 것이다. 그는 차량에서 굴러 나뒹굴었고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그의 의지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오른쪽

의 절반 가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지혈대를 꺼내 사용하기 시작했지요.” 24세의 Samudio 육군 이병이 말했다.

군의 항공의무 후송작전이 시작되었다. 공군 항공의무후송팀은 육군 의무병과의 협력 하에 신속히 부상자들을 전방에서부터 전역 내의 치료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이동시켰다. Samudio 이병은 이라크 리버티 전방공군기지 내 육군전투지원병원에 후송되었고 여러 차례의 수술을 거쳐 한쪽 발을 절단해야만 했다. 이후 추가 수술을 위해 발라드 공동기지 내 공군전역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회복기에 Samudio 이병에게 두 명의 간호사와 세 명의 의무 전문가로 구성된 공군 항공의무후송팀이 배정되었다. 이들은 비행시, 고도 변화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환자의 상



텍사스 주 항공의무 후송코스 기획관인 Angela Swanson 하사가 연습을 위해 부상자를 대기시키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기술적 훈련과 함께 그녀의 실전적 경험을 들려줌으로써 항공의무후송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해 준다. 후송 속도가 생명을 구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생히 보여준다

태를 돌봐주고 지켜보도록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Samudio 이병은 세 명의 나머지 환자들과 함께 C-17 Globemaster III를 타고 독일의 Landstuhl 지역 의무센터로 후송되었다. “의무팀은 너무나도 친절했어요. 담요, 따뜻한 수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해 주었습니다.” Samudio 이병이 말했다.

항공의무후송절차는 6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다음 비행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C-17를 타고 또 다른 항공의무후송팀과 함께 워싱턴 D.C.의 Walter Reed 육군 의무센터로 후송되었다. 이어진 최종 비행은 그를 마침내 고향인 텍사스주로 데려다 주었다. 이라크로부터 미 대륙까지 걸리는 총 소요시간은 약 27시간으로서 이는 후송기에 따라, 혹은 각 의무시설에서의 체류시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기도 한다. Samudio 이병이 최종 비행을 하기까지 Samudio 이병과 기타 환자들은 끝까지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Samudio 이병에 의하면, 항공의무후송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우리 상태는 어떤지 말해주었고 우리가 무엇을 겪었고 가족은 몇 명인지,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은지의 여부 등을 물어보며 저희를 편하게 해주려 노력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핸드폰도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저희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지요.”

샌안토니오 Lackland 공군기지 제433항공의무후송대대의 대대관리자인 Rodney Christa 원사는 부상전투병을 지원하는 항공의무후송작전을 20여년 동안 수행해 왔다. 그는 전투병들의 가족에게 마음의 평온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이 항공의무후송요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부상자들은 그들이 미국인과 약속을 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존중하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예를 위해 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부모님께 그들의 아들, 딸들을 지켜주겠노라 약속을 한 것이지요.” 그는 말했다. “전투병들은 부상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 부상을 당해 후송되는 전력을 수천명 보아왔습니다. 무언가 자신에게 발생하는 순간 97프로의 생존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또한 알지요. 항공의무후송팀과 의무병이 도착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존 가능성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항공의무후송팀은 전투전장으로부터 병원까지 부상자들

을 후송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군 환자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항상 대기상태에 있다. 이뿐 아니라 자연재해 혹은 인도적 임무 지원을 위한 대비 또한 되어 있다. 지난 수 년 동안 이러한 재해구조임무는 항공의무후송임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리타로 발생한 피해는 이러한 임무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였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Gulf 해안을 휩쓸고 지나간 후 Christa 원사가 보여준 의무 환자 후송 지도력과 항구적 자유작전시 보여준 능력으로, 그는 일리노이 주 Scott 공군기지의 공수/탱커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된다. 그가 겪은 허리케인 후송작전시의 경험은 추후 Gulf 해안 지역의 국가재해대책계획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저 이외에도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가 닥쳤을 때 항공 의무후송을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의 역할은 후송작전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일이었지요, 카트리나가 그렇게 소멸되지 않았다면 더 큰 국가적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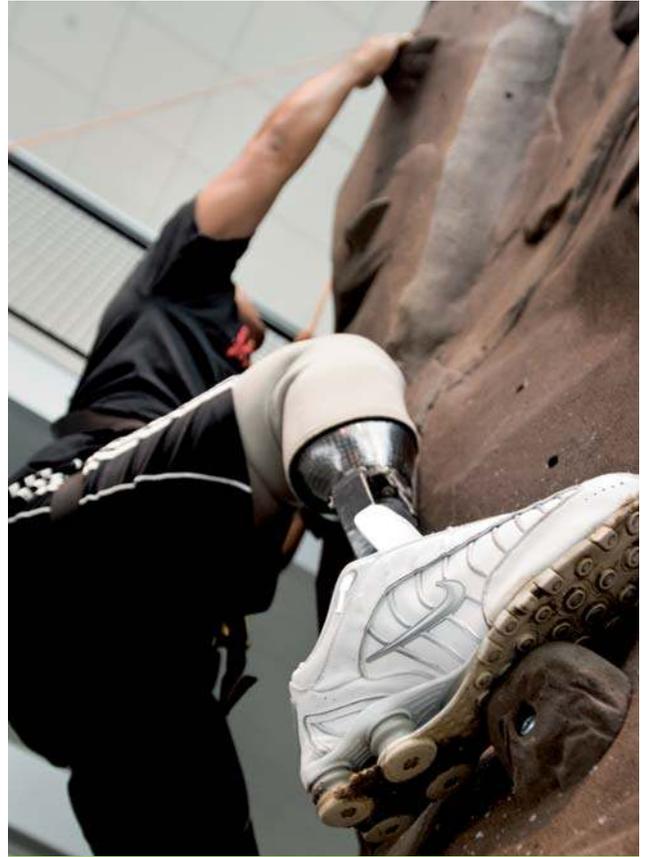
Ricardo Samudio 이병은 이라크 바그다드 서부에서 부상을 당했다. 그가 필요로 했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의무후송팀이 신속히 후송을 하였고 현재 Brooke 육군 의무센터에서 회복 중이다.

양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후송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미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한 추락했을 것입니다.” Christa 원사가 말했다. 당시 공군 의무병들은 재해 복구 중 2,609명의 환자들을 안전하게 후송시켰다. 2005년 9월 3일에는 공군팀은 또한 580리터 상당의 물을 조달하였고 300명의 보행가능 환자를 후송시켰다. 이는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수행한 하루 최대량이다.

위기 상황시 혹은 전쟁시의 성공적 임무 수행을 위해 항공의무후송요원들은 훈련을 받게 된다. 항공의무후송 훈련 프로그램은 현재 텍사스 주 Brooks City 기지에 위치하고 있던 항공의무학교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1년에 보통 900명 이상의 항공의무후송 기술자, 항공 간호사, 항공 군의관 및 주요 항공 후송팀이 교육을 거칩니다.” 훈련관리자인 Scott Curran 상사가 말했다.

항공의무후송 코스의 기획자인 Angela Swanson 하사는 평소 학생들에게 그녀의 실전경험을 말해준다고 한다. 직접 겪은 경험은 기술적 훈련과 함께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자료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항공의무후송이 얼마나 신속히 부상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된다. “학생들에게 항상 알려 주는 경험이 있습니다. Bradley에서 공격을 받았던 경험이죠.” Swanson 하사는 무장후송차량이 육군 부대를 신고 달리던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였다. “11명 환자들이 화상을 입고 후송 중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이 부상을 당하고 12시간 후에 현장으로부터 독일의 Ramstein 공군기지의 육군 화상 치료팀에게 안전하게 후송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의무후송요원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해당 과정들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중간에 자진 이탈하는 학생들도 있다. “모두가 이 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Curran 상사가 말했다. “자진해서 수업을 그만두는 사람들은 본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병원 내에서 일하는 의무병이 되고 싶기도 하고 혹은 좀 더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임무를 선호합니다. 부상을 당한 직후에 보게 되는 부상자들의 두려움으로 가득찬 눈동자를 견딜 수 없는 것이지요, 저를 포함한 모든 교관들이 들 것에 실린 환자들을 보도록 가르칩니다. 팔다리가 없어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부상자들을 보게 되지요, 그 중에는 그들이 당한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각하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이는 환자에게뿐만 아니라 그들과 접촉하게 되



Samudio 이병은 그가 샌안토니오까지 안전히 후송될 수 있었던 것을 공군 항공의무후송팀의 덕으로 돌린다. 현재 포트 Sam Houston에서 회복 중이다.

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 인생을 전환시키는 경험임에 틀림없습니다.”

인생이 바뀌게 된, Samudio 이병과 같은 환자들은 그들이 항공의무후송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호의를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의 상태는 더 악화됐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해준 것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큰 도움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Samudio 이병이 말했다. 공군요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Samudio 이병을 안전하게 집에 후송해 준 항공의무후송팀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군 항공의무후송팀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지 부상자들의 후송을 위해 달려갈 것이다.

Samudio 이병은 현재 샌안토니오의 Brooke 공군의무센터에 입원 중이다. 그는 최첨단 보철물을 통해 달리기 가능한 상태이다. 12월 육군을 전역, 텍사스 주의 Corpus Christi 대학을 다닐 예정이다. 육군 10마일 마라톤에 참가할 준비도 진행 중이다. 

항공 소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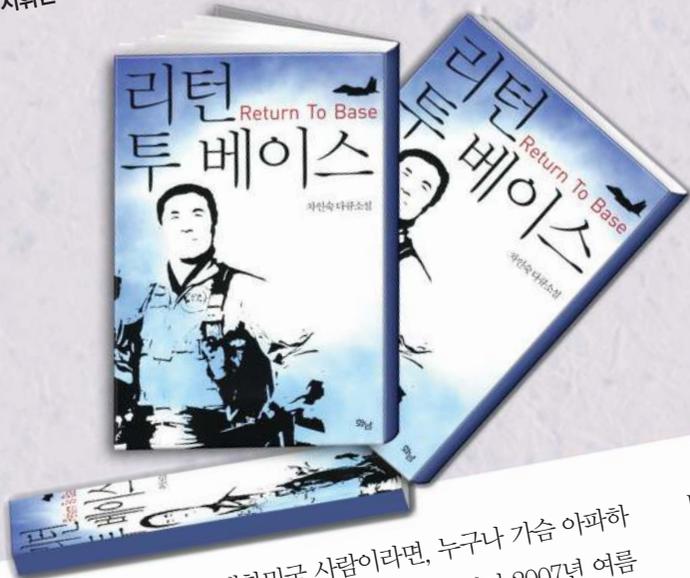
♣ 한국항공소년단은

기존 청소년단체 활동과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 꿈나무들에게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을 심어주고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장병 1인 1구좌(1만원) 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0-996245(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항공소년단)
- 후원금은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3-1 명남빌딩 2층 02) 953-7543/www.yfk.or.kr



를 읽고

- 故 박명렬 박인철父子 조종사
순직에 관한 실제 이야기 -

글 준장 박장경 | 제5전술공수비행단장

조종사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파하고 애석해 했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2007년 여름 밤 서해 상공에서 일어났다. 조종사로서 비행 중에 순직한 아버지 故 박명렬 공군 소령의 아들 박인철 대위가 아버지를 뒤이어 비행훈련 중에 순직한 것이다. 온 국민이 부자 조종사의 순직을 애도했고 인철 어머니의 기구한 삶을 안타까워했다.

나도 조종사의 한 사람으로서 훈련도중 많은 위험한 순간을 경험했다.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닌 가슴 아픈 우리들의 현실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조종사로서 젊은 나이에 순직했으니 가족들의 슬픔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으며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는가?

조종사들은 한 발은 이승에, 한 발은 저승에 두고 산다고 한다. 매순간 삶과 죽음을 오가는 조종사들의 삶은 참으로 고단하고 외로우며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는 힘든 삶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철이는 왜 아버지를 뒤따라 조종사가 되었는지? 다른 사람은 다 되어도 인철이만은 조종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인철이도 알고 있었을텐데 왜 말리지 못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에 짧은 인철이의 삶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박명렬 선배는 엄하기로 유명한 가입교 훈련지도 생도였으며, 우리들의 아버지 기생(3년차 선배기수)으로서 생도 생활을 같이하였다. 모범적이며 강인한 정신의 전형적인 생도, 군인의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 주었다. 작전참모 생도시절

박명렬 선배는 본인의 군인정신을 성무대 언덕 전체에 마음껏 펼치기도 하였다.

1984년 내가 중위로 강릉에서 근무할 때였다. 박명렬 선배의 사고 소식을 듣고서는 당시 편대장이었던 선배가 땅을 치며 후회하던 모습이 생각났다. 자신이 교관이었을 때 당시 박 중위를 워시아웃(도태)시켰어야 했는데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하여 다음 과정에서 재평가받을 기회를 주어 마침내 훈련을 모두 수료하고 조종사가 되어서 결국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화두로 삼고 '계속 이어지는 비극적인 비행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고심했던 첫 출발선에 박명렬 선배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박명렬 선배에 관한 이 이야기가 더욱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이며 나의 비행생활이자, 조종사 생활 이야기여서 깊이 가슴에 와 닿았다. 더구나 '옛 네'에서 처음 만난 이야기는 세월을 넘어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하였다. 우리들도 '옛 네'는 단골이었으니까...

누구나 원한다고 하여 조종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2년여 간의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훈련을 통과해야 하고 그 후에도 군인정신으로 국가에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가 분명할 때 조종사가 되는 것이다.

누구나 다 조종사가 되어도 인철이만큼은 조종사가 되어서는 안 됨을 다른 모든 조종사들과 가족들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인철이는 그 어려운 훈련을 잘도 이겨내고 우수하게

통과해 나갔다. 박명렬 선배를 알고 있었던 주변의 동료와 선·후배들이 인철이가 걸어가던 조종사가 되는 길을 어렵게 하였다. 그럴수록 인철이는 더욱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였으며 의지가 굳어져 갔다. 주변의 방해가 오히려 의지를 굳혀 준 계기가 된 것이다.

인철이는 아버지가 순직한 사실을 늦게야 알았다. 늘 그리 하듯이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Alert(비상대기실)'에 가신 것으로 알았다. 초등학생이 되어 현충원에 갔을 때 묘비에 적힌 '순직'이란 단어를 읽고서는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여쭙어 보고 '아빠가 국가를 위해 순직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는 전혀 내색 없으며 더욱 착실하게 공부하고 효도하는 착한 학생이 되었다.

사실 '박명렬'이란 이름은 그를 아는 몇몇 외에는 잊혀져가는 이름이었다. 시간마저 20년이 흘렀다. 그러나 박명렬 선배는 인철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났다. 죽었던 아버지를 무덤 밖으로

끌어 낸 효자 중의 효자이다.

내가 죽어 아버지의 죽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 것처럼 주변의 반대와 만류에도 무릅쓰고 어려운 전투 조종사 훈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공중에서 순직한 모양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이고 누구나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삶이라면 인철이의 죽음이 결코 슬프기만 한 애절한 죽음만은 아닌 것 같다. 참으로 고귀하고 아버지의 삶을 재조명하는 효성스러운 죽음이다.

조종사는 참으로 귀중한 인적 자원이다. 공군 전력의 중심이며 아무리 고가의, 고성능 항공기가 있다 해도 전투력 발휘의 중심인 조종사가 없이는 무용지물이며 고철에 불과하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조종사는 10여 년이 소요되는 정 말 양성하기 어려운 자원이다.

요즘 조종사들이 공군을 일찍 떠나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안보의 구멍에 모두가 무감각하다. 철책이 구멍 났다고 안보 위기를 걱정하는데 조종사가 100여 명씩 빠져 나가는 안보의 구멍에는 무감각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조종사는 전력의 한 부분이며 핵심으로서 국가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항공기 부품이 부족하여 돌려막기(동류전용)한다고 나무랄 게 아니라 조종사가 없어서 항공기 운용이 안 될 실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조종사는 돌려막기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리턴 투 베이스'는 공군 조종사들의 삶과 애환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다. 이 책이 우리 독자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군 조종사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어렵게 양성한 조종사들이 공군과 국가안보를 위해 끝까지 남아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조금이나마 이 글이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AT



아버지 묘소를 찾은 생전의 박인철 대위

추위를 이기는 개가 기지개켜는 자세

▣ 이희주 | 홍익요가협회장 사진제공 도서출판 홍익요가연구원

어느덧 벽에 걸린 달력이 덩그러니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스레 마음이 분주해지고 다급해지지요. 갖가지 송년모임으로 약속도 많고 여기저기 술자리도 잦아지는 데다가 새해 벽두에 세웠던 계획과 결심을 이룰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뭘 딱히 내세울 만하게 한 일도 없는데 또 한 살을 먹는구나' 라는 생각에 12월은 유난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달이지요.

평소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다가 이렇게 연말연시가 되면 나이 먹기가 싫다는 낫두리를 하는 젊은 후배들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봅니다. 이런 심리상태가 그냥 한두 번의 낫두리 정도가 아니라 싫고 두려운 정도까지 되어, 육체적으로는 성숙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기를 바라는 '피터팬 증후군'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은 198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사회나 인간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피터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취업경쟁이 하도 치열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 대학졸업을 늦추기 위해 일부러 휴학하는 것이 예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도 제대로 취업하기가 어려워 취업준비생으로서 백수생활 몇 년은 보통이다 보니 나이 먹는 게 두려운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아 결혼연령도 점점 늦어져서 해놓은 일도 없이 한살 한살 나이만 먹게 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버립니다.

최근에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어미 캥거루의 배주머니 안에서 보살핌을 받는 캥거루 새끼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않고 학자금, 생활비 등의 지원을 받으며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부류를 말한다고 합니다.

국내경기의 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경기침체기라 이런 현상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어른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포기하고 나이드신 부모님을 힘들게 한다면 이미 젊은이임을 포기한 것이 아닐까요? 사고방식이 고리타분하고 생각이 좁고 정신력이 나약하며 게다가 몸도 허약하다면 아무리 서류상의 나이가 젊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건강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줍니다.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틈을 주지 않을 것이며,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또 인고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정확한 판단력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나로 다루는 요가를 젊은이들이 수련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요가의 운동법(아사나)은 힘과 유연성을 동시에 키워서 젊음의 활력과 생기를 더욱 증가시키며, 요가의 호흡법(프라나야마)은 다소 다듬어지지 않은 혈기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삶의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나아가 요가의 명상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편안함과 안정감과 자존감을 가져다주어 인식의 폭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개가 기지개켜는 자세(Ado Mukha Svanasana)’는 온몸의 긴장을 풀면서도 전체근육을 조율할 수 있는 자세로 힘과 유연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꾸준히 하여 몸 전체의 힘을 기르고 조율하는 능력이 생기면 한겨울 추위와 신중플루도 가볍게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⁴⁾

〈개가 기지개켜는 자세 (Ado Mukha Svanasana)〉



④ 방법

1.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체를 앞으로 숙여 두 팔을 어깨너비의 약 1.5배로 벌려 손바닥을 바닥에 댄다.
2. 엉덩이를 들어올려 무릎을 편다. 두 발을 두 손과 같은 넓이로 벌리는데, 이때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딱 붙여 힘을 준다. 두 발은 팔자로 벌리지 말고 11자로 나란하게 만든다.
3. 숨을 내쉬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미는 동시에 머리와 가슴을 바닥쪽으로 내린다. 동시에 척추 전체를 쭉 펴면서 무릎에 힘을 주고 발뒤꿈치로 바닥을 민다.
4. 숨을 마시면서 몸 전체에 약간 힘을 뺐다가 다시 숨을 내쉬면서 힘을 준다. 이렇게 3, 4의 과정을 되풀이 하면서 가능하면 30초 이상 버틴다.
5.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 이마를 바닥에 댄 채로 충분히 이완한 뒤 자세를 푼다.

④ 효과

1.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피로회복에 좋다.
2. 어깨와 팔꿈치, 등 전체와 다리 뒷면의 불필요한 체지방과 긴장을 풀어주어 몸매를 날렵하고 강하게 조율한다. 특히 무릎을 튼튼하게 한다.
3. 머리를 맑게 해주고 호흡이 깊어지며 인내심과 집중력을 길러준다.

④ 참고

군 장병들이 장시간 도보나 행군을 마친 뒤에 이 자세를 하면 다리의 피로를 더 빨리 풀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Letters to the Editor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공군창군 60주년 축하 메시지〉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안보 제일선에서 지휘하는 분들의 메시지를 통해 공군 60년 역사를 간략히 엿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자랑스런 공군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멋진 월간지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10월의 깜짝 이벤트 Post Card와 엽갈리게 편집하신 센스에 또 한번 읽는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북 안동시, 이지희 -

#2

월간 「공군」을 접하고 나서부터 공군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공군에 대한 또 다른 신뢰감!! 항상 새로움과 따뜻함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이번호에는 창군 60주년 특집기사를 보면서 여의도 공원에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 인천 부평구, 안동원 -

#3

〈Future & Insight〉에서 다룬 ‘공군 비전 2030’은 우리 공군의 나아갈 바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비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지합니다. 공군의 4대 핵심가치를 구현하는데 국민의 지지도 필요합니다. 공군과 국민 간의 교류 및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기획물이 연재되기를 바랍니다. 공군을 빛낸 인물들에 대해 자세한 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각 병과별로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업적을 널리 소개하여 4대 핵심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서울시 서초구, 나병재 -

#4

평소 피부관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부족한 정보를 채워준 〈Beauty 바이러스〉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타 부대의 공군 장병의 생활이 궁금합니다. 군 관련 기사 외에도 여러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 더 좋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 경기 평택시, 황원엽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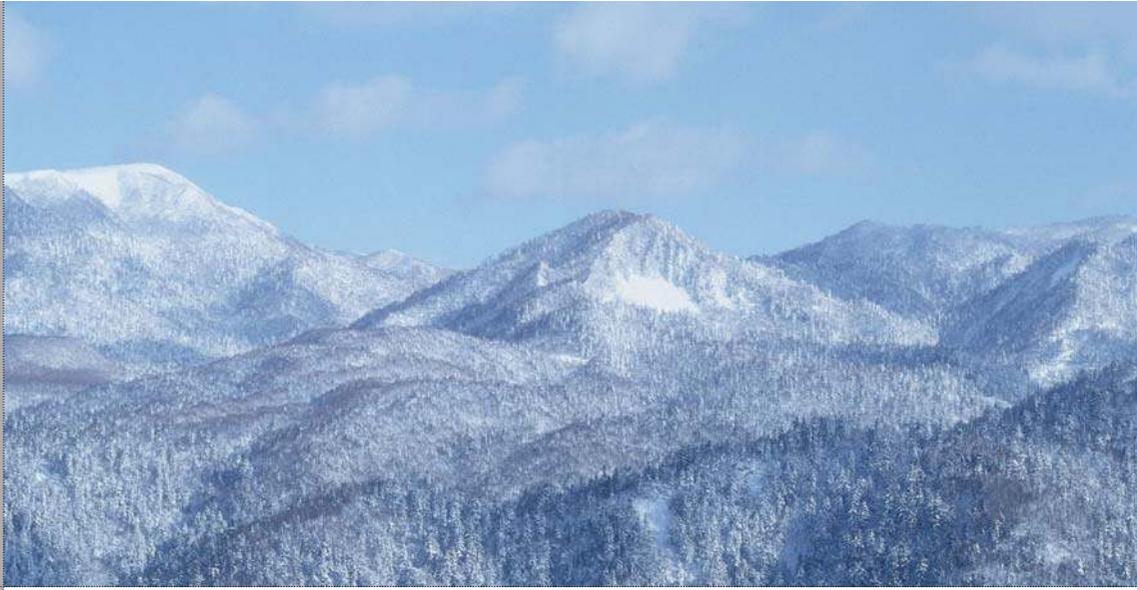
공군 창군 60주년 특집호라 그런지 표지부터 예사롭지 않게 꾸며졌고, 반쪽씩 엽갈려 편집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흥미유발시켰으며 우리나라 보유 기종을 엮서크기 화보로 실어주셔서 보는 즐거움과 설명이 곁들여져 아주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역시 맛있는 공군이었습니다. 현역 글뿐만 아니라 예비역 공군의 활동상도 발굴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북 포항시, 김현희 -

#6

〈Future & Insight〉 ‘세계우주분야 투자 및 우주산업현황’에 관한 글을 보니 공군의 미래모습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선진창조공군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공군조종사의 생활상을 취재해 주세요. 훈련 과정과 전문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60주년 특집호를 보면서 달라진 공군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과 항상 함께하는 공군으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 서울 용산구, 송호진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훈공보실장(문흥과장)

발신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6935, 02) 506-693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12월호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12월호 퀴즈정답

1.

2.

3.



Quiz

월간 「공군」 12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12월 31일까지

1. 1950년대 노드롭사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로서 지난 1999년 공군에 리스된 후 2009년 12월 1일 미국에 최종 반환되는 항공기의 명칭은?
2. 공군본부는 11월 25일 코엑스몰에서 지식경제부 주관 제35회 국가 품질경영대회에서 ○○○○○○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3. 매를 부르는 명칭은 자란 조건과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다. 생후 1년 이내의 털갈이가 안 된 청년기의 참매의 명칭은 무엇인가?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tribune44@gmail.com(인터넷)

tribune44@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 02-506-6935/042-552-6935

※ 10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우주사령부
2. 김정렬 장군
3. 37명

퀴즈 당첨자

- 경북 포항시 김현희
서울 서초구 나병재
서울 용산구 송호진
경기 평택시 황원엽
인천 부평구 안동원
경북 안동시 이지희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기무사령부

(☎ : 1337, www.dsc.mil.kr)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를!



60번째 생일을
맞이한 공군과
2009년을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